

# 解放後濟州研究概觀\*

## — 語文學 民俗分野 —

金榮敦\*\* 申幸澈\*\*\* 姜榮峯\*\*\*\*

### 目 次

I. 序	IV. 口碑文學
II. 方言·口碑文學·民俗의 研究動向	V. 民俗分野
III. 方言	VI. 要 約

### I. 序

學術情報把握은 학문의 첫걸음이다.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쉽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學問함에 있어 그 바탕이 되며 연구수행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것이다.

제주도는 그 地理·歷史·社會的 特異性으로 말미암아 珍重한 學術資源의 寶庫로 널리 알려져 왔고 일찍부터 국내의 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그리고 그 조사연구업적도 나날이 쌓여져 간다. 제주도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드높아감에 따라 이제까지의 調査·研究業績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편 또한 절실히 요청돼 간다.

학술정보를 자못 정확하고 쉽게 확보한다는 것은 學術研究의 첫 제제이매 同學들에게는 그 便宜를 제공하고 요마적에 부족 늘어나는 新進들에게는 先功者들의 업적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기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解放後 濟州研究에 있어 語文學·民俗分野를 一次的 對象으로 그 研究活動을 살펴 보기로 한다.

- \* 本研究는 1981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한 것임.
- \*\* 人文大學 國語國文學科 敎授
- \*\*\* 社會科學大學 社會學科 助敎授
- \*\*\*\* 耽羅文化研究所 助敎

石宙明에 의하여 해방전의 제주연구업적을 종합한 바 있었던 「濟州島文獻集」(1949) 외로는 여태껏 이에 따른 그렇다할 작업이 없다. 우리는 국내외에 걸쳐 제주도조사연구작업이 어떻게 수행돼 왔는가에 대하여 그 論著目錄 작성작업과 論著解題 및 그 조사연구동향을 시급히 집약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이 작업은 우선 분야별로 論著目錄을 收合하여 解題하는 한편 그 연구동향을 철저히 살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작업이 쌓여 나갈 때 제주도 연구를 통틀어 本格的 濟州研究史가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1945년 이후 1970년대말까지의 제주도연구 가운데 語文學과 民俗學分野에 국한하여 그 조사연구동향을 개관함에 있어, 그 論議對象은 方言·口碑文學·民俗으로 나눈다. 語文學은 方言研究만을 논의대상으로 삼으면서 語文學과 民俗 두 분야에 관련되는 口碑文學을 독립시키는 한편, 口碑文學을 제외한 民俗을 한 분야로 삼았다. 口碑文學을 독립시킴은 비교적 이에 대한 작업이 활발하다는 점에서도 연유한다. 그리고 鄉土文學論議考究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그 자료나 논문은 단행본과 학술지에 발표된 것에 국한함이 원칙이지만, 발표지면이 뜻과 같지 않았던 지난날의 실정으로 보아 논문의 성격을 갖춘 글이거나 問題되는 글이면 제주도 발행의 《제주도》 등에 발표된 글도 가다가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제까지는 1년 단위의 제주도 학술제, 특히 인문과학분야를 간편하게 조감해 본 글들<sup>1)</sup>이 보일 뿐인데 그 해를 전후한 학문적 분위기가 짐작될 뿐이다. 玄平孝의 〈濟州島方言研究에 對한 檢討〉<sup>2)</sup>는, 제주도방언연구사를 정립하는데 획기적인 글로서 본 연구를 이룩함에 크게 참고됐다. 口碑文學의 論著目錄을 수합함에 있어서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口碑文學 1·2》

註 1) 玄容駿; “本格研究에로의 出發: 64年度 各界決算, 學術”, 「제주도」 제 18호, 1964.12.

金榮教; “鄉土의 學術活動의 近況을 전하면서: 在日僑胞에의 公開書翰”, 「제주도」 제 19호, 1965.5.

金榮教; “조용한 전진으로 굳혀온 기쁨: 69년의 피날레” 「제주도」 제 42호, 1969.12.

玄容駿; “學術”, 「濟州年鑑」, 1969年版, pp.285~288.

金榮教; “學術”, 「濟州年鑑」, 1976年版, pp.161~163.

2)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에 對한 檢討”, 「方言」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學研究室, 1979.

에 수록된 바 〈口碑文學關係論著目錄〉에서도 힘 입은 바 컸으며 夫萬根의 《光復濟州三十年》(1975)의 ‘제주관계연구논문목록’도 참고가 되었다.

우선 1945년부터 70년대말까지의 연구동향을 대체로 살핀 다음, 방언·구비문학·민속 별로 그 개황을 간추리기로 한다. 이런 작업이 成熟하려면 우선 그 論著目錄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고 조사시일이 짧아 뜻 같질 못했음이 아쉽다. 누락되는 점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論著目錄은 끝에 論著者主記로 덧붙이지니와, 本文에서는 편이상 論著者名과 論著名 및 出版, 또는 發表年度만을 밝힌다. (本文中 論文은 〈 〉, 著書는 ≪ ≫로 표시한다.)

## Ⅱ. 方言·口碑文學·民俗의 研究動向

해방후 제주도에 관한 학문적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한 것은 6·25 당시라 볼 수 있다. 1951년 5월에 이르러서는 피난민 수요가 제주도 토착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15만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는 張志暎, 趙義高, 洪承國, 金冕五, 黃聖熙, 郭福山氏 등 碩學들과 桂鎔默氏 등 文人들이 끼어 있어서 이곳 학술문화계에 文藝復興期를 맞이하게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문적 터전이 잡혀지기 시작한 것은 1952년 5월 27일 濟州初級大學이 개교하면서부터다. 國文科·英文科·法科·畜産科 등 4개 학과를 둔 대학이 문을 열고 나날이 성장하여 30주년을 맞는 오늘날에는 5개 단과대학 2개 대학원을 포괄하는 綜合大學校로 자랐으니, 이의 성장과정과 비례해서 제주도의 학문도 커왔다고 볼 수 있다.

6·25 전에 石宙明에 의하여 《濟州島方言集》등 濟州島叢書 세권이 나온 바 있었지만은 제주도 연구를 濟州人의 손으로 이룩하려는 의욕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기의 일이라 볼 수 있다. 玄平孝에 의하여 제주도방언조사가 착수되었으며, 1954年 淡水契에 따른 《增補耽羅誌》, 1957年 文總濟州道支部의 《濟州文化》, 1958年 梁弘植·吳太用에 따른 《濟州鄉土記》와 진성기의 수많은 구비문학 자료집의 발간 등은 지역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근거다.

이 무렵 1958년초 方言·民俗調査班 일행 7명의 (班長·李崇寧) 내도에 이어, 1959년 7월의 濟州道綜合學術調査團 95명이 찾아들으로써 이곳 學術資源의 珍重性이 재확인되어 갔다.

1960년대에 이르러 제주도연구는 현지에서도 본계도에 올라섰다. 1962년 玄平孝의 《濟州島方言研究》(第一輯 資料篇) 발간은 제주도 방언연구에 획기를 마련했을 뿐더러, 자료정리의 시범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그 뜻이 깊고 제주도 학술제도 제자리를 굳힌 셈이다. 이에 앞서 1960년에 朴用厚의 《제주방언연구》가 나왔으며 洪貞杓의 《濟州島民謠解說》(1963), 金榮敎의 《濟州島民謠研究·上》(1965)의 간행 등이 잇따랐으니 濟州研究의 출발은 方言과 民謠 說話 등 口碑文學 조사연구부터 活性化되기 시작한 셈이다. 그 당시 제주도 연구에 관심을 쏟는 분들이 대체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분들로써 이루어졌다는 데 연유하는 셈이다.

1962년 제주도에서 내기 시작한 《제주도》는 물론 行政誌이면서도 學術 論文集이 아직 없었던 그 당시로서는 準學術誌의 性格을 띠면서 濟州學術文化啓發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1966년에는 東京大學教授 泉精一에 따라 《濟州島》가 나왔으니, 본도에 대한 文化人類學分野 著書로는 처음의 것이다.

개인들에 의하여 산만히 이루어지던 향토연구는 1964년 濟州道國語文學會와 濟州島民俗學會가 탄생함으로써 학문의 공동체적 결속이 실현되었다. 창립되면서부터 두 학회는 학술발표회와 세미나를 열고 學會誌를 내는 등 그 연구활동이 눈부신 바 있었다. 濟州道國語文學會에서는 이 지방 高校의 부교재로 《高校生活國語》(1964)를 펴냄으로써 후진들에게 향토의식을 불러 일으켰는가 하면 濟州島民俗學會에서는 《濟州島民俗》 1·2·3輯을 펴내는 한편, 중앙학계의 중진들을 초빙, 「제주도문제 심포지움」을 엮으로써 제주도연구의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財源의 뒷받침이 없어 두 학회의 활동이 이어져지지 못했음이 썩 아쉽다.

文化財管理局의 조사의뢰에 따라 이 지역 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도 1965년부터의 일이다.<sup>3)</sup>

3) 玄容駿·金榮敎의 「濟州島 무당굿놀이」(1965), 玄容駿의 「토산당굿」(1966), 「部落祭堂」(1969), 金榮敎의 「濟州島民의 通過儀禮」(1966), 「濟州島民의 民間工藝」(1967), 「濟州島의 石像·石具」(1968), 「濟州島民家四棟」(1970), 「旌義고을」(1973) 「硯子磨」(1975) 등 보고서가 차곡차곡 쌓여져 갔다.

이러는 가운데 濟州大學에서는 1969년부터 논문집이 나오므로써 학술활동이 활발해졌고 학과별 각 학회에서도 논문집 발간이 불어나는 가운데 濟州教育大學, 濟州看護專門大學, 濟州實業專門大學 등에서도 논문집 발간이 서둘러짐으로써 이곳 학술계는 점차 성숙해 갔으며 1980년에는 濟州大學教育大學院 學友會에서 《研究論叢》이 창간되었다. 1969년부터 발간된 《濟州年鑑》은 학술정보를 얻는 데 이바지되는 바 크다.

외국인들이 내도하여 조사하는 빈도도 짙어갔다. 《濟州島》를 낸 東京大學의 泉精一를 비롯하여 日本 여러 대학의 교수와 학생, 유럽의 학자들이 학술조사를 위하여 드나들었는데 특히 民俗學, 人類學分野의 조사활동이 활발했다. 이러는 가운데 方言·口碑文學에만 치우쳐졌던 조사연구가 民俗學 전반과 인문사회과학 전분야에 뻗쳐 갔다.

1970년대에 이르면서 제주도연구는 그 調查研究領域이 擴大, 細分化되어 갈 뿐더러, 密度 짙은 研究가 이루어져 갔다. 도내 각 대학의 논문집과 대학내 각 학회의 학회지가 나날이 불어남으로써 제주도 연구를 위해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는 마당이 활짝 넓혀져 갔다. 70年代에 이르면서 들체의 특징은 產學協同的 研究도 활성화되어 갔는가 하면, 세계로는 共同調查와 學術會議를 여는 빈도가 많아져 갔음을 지적할 수 있다. 文化財管理局의 지원에 따라 韓國文化人類學會가 주관하는 제 4차 韓國民俗綜合調查가 1971년도에 실시되었다.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속 전분야에 걸쳐 공동조사, 집필함으로써 제주도 민속을 집약, 개관해 보았다는 데 그 뜻이 있는데 그 보고서는 1974년말 출판되었다.

그 비슷한 작업으로 1973년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가 이루어졌다. 제주도에서 주관한 이 조사는 거의 현지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조사, 연구해 온 결정이 이 조사보고서에 집약된 셈이다. 60년대부터 民俗이나 文化財研究가 활발히 전개되다가 이만큼의 결실을 보았으니, 이 지역에서의 조사연구도 이 작업을 고비로 成年式을 치른 셈이다. “濟州道の 概觀”을 머리로 “民俗篇” “建築篇” “美術篇” “古蹟篇” “特殊自然資源篇”으로 나누는 한편, 고틀머리에 “文化財 保護와 觀光開發에 대한 觀點”이 덧붙여졌다.

공동연구의 열의는 서울에까지 뻗쳐갔으니, 1978년초 제주도 연구에 뜻

을 둔 인사들끼리 濟州道研究會(會長 張壽根)를 마련하더니 연구발표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sup>4)</sup>

현지조사에 대한 의욕은 1970년대에 이르러 학생들에게까지 불붙기 시작했다. 제주대학 국어국문학회에서는 倉川·牛島·加波島·中文·蘭山·城邑·納邑·德修 등지를 1972년부터 여름방학 때마다 차곡차곡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國文學報》 제 4집~7집 및 《學術調查報告書》 제 5·6집에 실고 있다. 濟州大學 民俗博物館 附設 文化財研究會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龍水里와 吾照里의 현지조사를 거친 다음, 《海村生活調查報告書》(1978)를 낸 바 있다. 觀光學科, 社會學科 등 몇몇 學科單位의 현지조사도 활성화되어 가는가 하면 濟州大學 濟州道問題研究會에서는 《濟研》을 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濟州道 學友會에서도 방학을 이용, 제주도의 당면문제를 조사하고 몇가지 보고서를 내고 있다.

70년대에 이르러서는 학술회의도 빈번하게 열림으로써 조사연구의욕을 한결 북돋아 주었다. 오히려 史學과 관련이 깊겠지만은 제주대학 민속박물관에서는 1974년 「第一回 濟州學學術會議」를 일으키고 李衡祥 牧使의 《耽羅巡歷圖》와 《南宦博物誌》를 분석했다. 1978년에는 韓國言語文學會(당시회장·玄平孝) 第19回 研究發表大會가 제주대학 도서관에서 성대히 치러졌으며, 제주도민의 傳來的 意識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헤치는 「耽羅精神探究세미나」<sup>5)</sup>가 1979년에 열렸다. 제주외솔회(회장·홍순억)에서의 연례연구발표회도 끈기 있게 이어져 간다.

제주도교육연구원에서는 《耽羅文獻集》(1976), 《濟州教育史》(1979), 《耽羅史料志》(1981) 등 향토사 및 교육사관계의 중요한 서적을 내었으며

- 
- 4) 1978~1981 사이 11 회까지의 研究發表者와 題目을 보면, 張壽根(地域研究의 標本으로서의 제주도), 高富子(제주도의 儀禮服), 秦聖麟(조랑말에 얽힌 說話), 姜信杓(제주도의 構造의 原理), 康貞姬(제주도방언 接尾辭에 대하여), 高忠錫(제주지역사회개발을 위한 實驗的 모델에 관한 研究), 李符永(精神醫學의 側面에서 본 제주도 民俗學研究의 展望), 趙惠貞(人類學的 研究地域으로서의 제주도), 서병설(제주도 風土病에 대하여), 金鴻植(城邑里 住宅構造), 崔在錫(제주도 親族構造研究의 問題點) 등이다.
- 5) 제주도민의 意識構造를 탐구하려는 의욕은 요마침에 이르러 活性化되어 간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濟州大學 統一安保研究所의 「濟州道民의 意識構造」(1979)가 있다.

있따라 쏟아져 나온 歷史·地誌관계 저서들은 方言이나 民俗研究에도 측면에서 도움되는 바 크다.<sup>6)</sup>

方言·口碑文學·民俗 각 분야에 걸쳐 現地學者들의 업적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가운데 日人學者들의 來道도 빈번해졌다. 梅田博之는 方言調査를, 佐藤信行·竹田且·伊藤亞人 등은 信仰·親族·家族을 중심으로 한 민속조사를 위해 자주 드나들었다.<sup>7)</sup> 阪南大學의 稻田菊太郎가 학생들과 더불어 海女調査하러 몇 차례 다녀갔으며 田邊悟는 海女器具를 조사한 바 있다.

제주도를 소재로 다룬 학위논문도 70년대에 이르러 점차 드러난다.<sup>8)</sup> 方言·民俗分野만 간추려 보더라도 우선 1975년 2월말 玄平孝의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라는 학위논문은 後學들에게 좋은 시범이 됐다.

- 6) 「濟州年鑑」이 1969年, 1976年, 1977年, 1980年 도합 네권이 나왔는가 하면 淡水契의 「增補耽羅誌」(1954), 禹樂基의 「濟州道」(1965), 「國民觀光 I, 濟州道」(1980), 이봉준·송석범의 「제주도 민속과 관광」(1965), 梁正圭의 「耽羅의 黎明」(1970), 韓致文의 「耽羅實錄」(1973), 濟州道教育委員會의 「향토지」(1972), 제주도 관광운수과의 「관광제주」(1974), 夫萬根의 「光復濟州 30年」(1975), 韓東龜의 「濟州島」(1975), 朴用厚의 「元大靜郡誌」(1968), 「濟州島誌」(1976), 「南濟州郡誌」(1978), 吳成贊의 「濟州民의 일」(1977), 康文昊·文泰善의 「濟州宣教 70年史」(1977), 權寧徽의 「瓶窩李衡祥研究」(1978), 韓昌榮의 「濟州道隨想」(1979), 金玉姬의 「濟州島辛丑年教難史」(1980) 등의 저서도 方言과 民俗研究에 도움될 저서들이다. 濟州高氏門中會의 「耽羅星主遺事」(1979) 등도 貴重한 저서이며 邑面이나 마을 단위의 郷土史誌도 잇따라 발간되는 가운데 金奉玉의 「高內誌」는 그 조사방법이 제치밀하다. 梁宇嶺·Frederic H. Dustin의 「Koreas Island Province an Introduction to Chejudo」(1975), 梁相翺의 「Echoes of Mt. Halla」(1977) 등도 外國人들에게 제주와 제주의 民俗를 알리는 데는 좋은 저서다.
- 7) 이밖에 宮本常一, 大林太良, 直江廣治, 龜山慶一, 豊田登, 服部龍太郎, 宮本架婆雄 등
- 8) 碩士論文의 경우 기억에 떠오르는 바를 든다면 康貞姬(제주도방언의 동사접미사연구), 金貴子(제주도방언의 존경접미사연구), 申斗憲(濟州島民謠의 研究), 左永助(韓國民謠研究: 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 姜龍祐(民謠에 投影된 地域社會人의 意識構造와 Communication 活動: 濟州島民謠에 대한 內容分析), 金榮教(濟州島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高在奐(濟州島俗談의 特性), 高富子(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研究: 通過儀禮服의 研究), 金惠淑(濟州道家庭에서의 夫婦關係), 梁南順(濟州道 農村勞動服의 物性에 關한 實驗的 研究), 梁義淑(제주도 櫃에 대한 研究), 吳和男(郷土意識에 대한 分析的 研究: 濟州道 中等學校 學生을 中心으로), 姜榮峯(濟州島方言의 後置詞에 關한 研究), 姜炳燦(女性活動에 關한 研究: 濟州道를 中心으로), 張愛深(濟州道 巫俗祭 祭物의 民俗學的 研究), 姜元植(漁村住民의 郷土意識에 關한 研究), 洪明杓(濟州道 海女의 權益被奪에 關한 研究), 姜恩淑(서울市와 濟州市의 未婚男女의 結婚觀에 關한 研究)

### Ⅲ. 方 言

제주도 방언연구도 국어방언학과 마찬가지로 日人學者 小倉進平·河野六郎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방언연구가 일인학자에게 주도권이 넘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봐 당연한 일이며 그 이후 方鍾鉉의 방언에 대한 연구가 국내학자에게 알려지면서 방언연구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李崇寧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1957)를 비롯하여 玄平孝의 《濟州島方言研究 (第1輯 資料篇)》(1962)과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1974) 등 이 방언사에 정점을 이루는 연구와 자료집을 위시하여 점차 많은 연구업적이 쌓여가고 있다. 허지만 지금까지 연구가 音韻論과 形態論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統辭論 및 語彙論·意味論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고 系統에 관한 연구도 논문의 한부분으로 언급이 될 뿐 껍미미한 실정이다.

해방이후 70년대말까지 90여편의 연구업적을 가지고 記述의 편의상 音韻論·文法論·語彙論·系統論 순으로 나뉘어 개관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기에 있어서 金榮振의 〈國語方言研究의 史的 考察〉(1967), 李翊燮의 〈國語方言 研究史〉(1978), 玄平孝의 〈濟州島方言研究에 대한 檢討 (I·II)〉(1979)에 힘 입은 바 큼을 밝히어 둔다.

#### 1. 音韻論

濟州島 방언의 音韻에 대한 연구는 形態論과 함께 꽤 활발하게 이뤄진 셈이다. 여기서는 母音과 子音에 대하여 살피고 난 연후에 音韻諸現象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 1.1. 母音

제주도 방언이 크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제주도가 絕海孤島로 改新波의

영향을 덜 받아 方言 본래의 모습과 함께 ‘·’음이 유지·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이 ‘·’음에 대하여는 小倉進平, 河野六郎, 方鍾鉉의 언급이 있고 난 후 ‘·’음 어휘들을 통하여 ‘·’의 발달과정과 함께 言語史的 意義와 중요성을 피력한 李崇寧의 《國語音韻論研究 제1집 ‘·’音攷》(1954)가 있으며 中世語의 모음체계를 기술하는 가운데 이 방언의 ‘·’음에 대하여 언급한 李基文의 《國語音韻史研究》(1962)와 이 母音과 관련 國語音韻史의 관점에서 문제가 될 ‘·’와 ‘·’, 脣音 뒤의 非圓脣性 등을 다룬 〈濟州島方言의 ‘·’音과 관련된 몇 問題〉(1977)가 있다. 제주도 방언연구에 일생을 바쳐오고 있는 玄平孝는 〈濟州島方言 ‘·’音小考〉(1963)에서 그의 자료집인 《濟州島方言研究》의 ‘·’음 어휘들을 집계, ‘·’음 사용 실태와 음가를 규정하고 있다. 原語民들의 音韻意識과 객관적인 발음상태를 토대로 이뤄진 연구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밖에도 ‘·’음에 대한 연구로는 徐廷範의 〈濟州島方言의 ‘·’表記語〉(1967), 朴址浩의 〈濟州島方言에서 본 ‘·’音小考〉(1976) 등이 있다.

‘ㅅ’음에 대하여는 ‘ㅅ’와 ‘ㅆ’구별이 불분명함과 동요를 언급한 李崇寧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에서 ‘ㅅ’음 문제가 제기되었고, ‘ㅅ’음 사용어휘 실태를 표준어와 방언의 대비를 통하여 ‘ㅆ’와 별개의 音素로 간파한 玄平孝의 〈濟州島方言 ‘ㅅ’音에 대하여〉(1964)는 記述文法에 의한 音韻分析의 모범을 보여주기도 한다.

二重母音 중 ‘··’는 李崇寧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1957)에서 발견, 언급이 있은 후 玄平孝의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1970), 〈濟州島方言의 音韻〉(1971)과 李基文의 〈濟州島方言의 ‘·’에 관련된 몇 問題〉(1977)에서도 논하고 있다.

이 방언의 母音體系에 대하여는 10개의 單母音體系의 李崇寧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를 비롯하여 9개 單母音으로 본 金完鎭의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1963)이 돋보인다. 이 방언의 母音體系가 논문의 일부분으로 다뤄지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파악이 되고 장차의 구조까지 예견해 주고 있다. 玄平孝는 〈濟州島方言의 單母音設定〉(1964)에서 9개의 單

母音을 설정하고 난 뒤 장년층과 연소층에 따라 母音體系가 달라 장년층은 9개 音韻이 존재하고 연소층은 7개 音韻이 되리라고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 (1970)에서 說破하고 있다.

康允浩는 <濟州島方言에 있어서의 共通語系語彙의 音韻體系와 그 環境에 대하여> (1960)와 <제주도 방언에 있어서의 公同어계 어휘의 음운양상> (1960)에서 共時言語學의 입장에서 이 방언의 음운에 대하여 公同어 음운과의 상관성을 살피고 있다.

이밖에도 成洛秀의 <濟州島方言에 나타난 音韻體系> (1968), 玄平孝의 <濟州島方言의 音韻> (1971) 등도 보이며 최근에는 이 방언 母音에 대하여 과학적인 音響分析을 하여 母音體系의 分布圖를 작성한 金韓坤의 <濟州方言 母音體系의 音響分析> (1980)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 방언연구에 있어 과학기재의 힘을 빈 최초의 연구로 특기할 만하다.

### 1.2. 子音

子音에 있어서는 몇 개의 音韻現象 즉 頭音法則·有氣音化現象·硬音化現象·口蓋音化 등이 논해져 왔을 뿐 音素設定이라든지 子音體系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된 바 없다. 이것은 이 방언의 子音이 육지어와 대비할 때 대차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유된 것이긴 하지만 한 방언에 대한 연구가 완성이 되려면 개별적인 연구보다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기 때문에 子音에 대한 音素設定과 子音體系가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 1.3. 音韻諸現象

音韻의 諸現象에 대하여는 산발적으로 논문의 일부분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는 용어부터 체제까지 崔鉉培의 이론적 배경에 따른 朴用厚의 <<제주방언연구>> (1960), 金榮教의 <濟州方言의 音韻概觀> (1957), 音韻諸現象과 變化要因까지 살핀 金文奎의 <耽羅方言試攷> (1960)와 <國語學과 濟州島> (1966), 徐廷範의 <濟州方言의 音韻變化攷> (1966) 등이 있다.

제주도 방언연구에서 音韻에 대한 研究는 꽤 진척이 됐다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母音에 대해 여러학자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된 데서 연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二重母音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편이며 子音音素設定과 체제에 대해서도 시야를 돌려야 할 것이다.

## 2. 文法論

국어학에서도 文法論을 보통은 形態論과 統辭論으로 나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造語論과 아울러 形態論·統辭論으로 나눠 살피고자 한다.

### 2.1. 造語論

제주도 방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李崇寧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1957)가 있다. 이러한 연구에 해당되리라고 보아지는 것으로 각 分野에 걸쳐 加波島方言의 몇 개의 언어사실을 놓고 보고서 형식으로 된 李基文의 〈加波島方言의 特徵〉(1980)과 金亨奎의 〈濟州島の 方言〉(1971)이 있긴 하지만, 李崇寧의 논문은 한 방언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라는 데서 國語方言史에 있어서 정점을 이뤄 획을 긋는 勞作이다. 그는 ‘造語論의 考察’에서 이 방언 특유의 造語論의 特徵을 간직한 어휘들을 광범하게 다루고 있어 이 분야의 선구적 시범이라 할 만하다.

語幹形成에 대하여는 姜根保의 〈Affix 研究〉(1968)가 있으며 金洪植은 〈語幹末 母音脫落에 대하여〉(1977), 〈用言의 末音母音에 대하여〉(1978)를 비롯하여 한 어휘에 대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로 〈‘缺’語에 대한 小考〉(1976), 〈‘비바리’語考〉(1980), 〈濟州島方言 ‘가쟁이’語考〉(1980) 등을 발표하고 있다. 특이한 造語論의 研究로는 ‘ㅇ’과 ‘ㅎ’의 기능을 살핀 玄容駿의 〈濟州島方言에서의 ‘ㅇ’考〉(1956)와 〈‘ㅎ’插腰音에 대하여〉(1957)란 논문이 발표된 바 있어 민속학 이전에 방언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 ‘ㅎ’插腰에 대해서는 徐廷範의 〈濟州島方言 點攷〉(1957)에서도 보인다. 외국인의 연구로는 安田吉實의 〈濟州島方言における接尾辭 ‘-아기·아지·장이·아치·바치’의 考察〉(1968)도 눈길을 끈다.

## 2.2. 形態論

제주도방언에서 格에 대한 연구도 李崇寧의 업적이 크다.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1957) 중 ‘名詞의 格變化’에서도 이 방언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格과 함께 고대국어의 格體系와 관련시키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온 姜根保는 그의 일련의 논문에서 格의 기능과 構造的인 특성을 밝히기 위해 隣接言語인 일본어와 관련하여 考究하고 있다. 屬格과 複數接尾辭의 두 기능을 고찰한 〈屬格 ‘-ne’의 研究〉(1977), ‘-ture’의 기능을 古代語의 계승으로 본 〈濟州島方言의 接尾辭 研究〉(1978), 여러가지 格의 용법을 기술하고 그 의의와 구조를 밝힌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1979)가 있다. 處格에 대한 研究로 康貞姬의 〈濟州方言의 處格 ‘디’에 대한 一考察〉(1980)이 있으며 後置詞에 대하여는 姜榮峯의 〈濟州島方言의 後置詞에 관한 研究〉(1981)가 있다.

濟州島方言의 動詞活用에서 가장 두드러진 特徵인 未完了相과 完了相, 未完了存續相과 完了存續相이 대립이 되어 이 방언 특유의 動作相을 살핀 玄平孝의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1974)가 돋보인다. (이 점은 그의 〈濟州島方言 活用語尾와 文獻語의 比較研究〉(1973)에도 들及된 바 있다) 이것은 ‘口’을 행동의 진행 즉 aspect의 機能을 考究·發展시킨 것으로 이 방언연구에 정점을 이루고 있다. 洪宗林도 〈濟州島方言의 先語末語尾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1976)에서 이 動作相을 다루고 있으며 康貞姬의 〈濟州方言의 時相研究〉(1978)도 있다. 그는 時制에도 관심을 가져 〈濟州方言 接續文의 時制에 관한 一考〉(1978)도 발표한 바 있으며 이곳에 와 일년동안 이 방언을 연구한 李男德도 〈濟州島方言의 動詞終結語尾에 나타난 時相體系에 대하여〉란 논문을 곧 발표되리라 한다.

敍法에 관한 연구로는 李崇寧의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1957)를 위시하여 玄平孝의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1974)에서도 先語末語尾와 語末語尾로 나타내지는 敍法에 대하여 고구하고 있으며 語末語尾

의 絃法은 〈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1974)에서도 고찰하고 있다. 개별적인 絃法問題로 洪宗林의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考察〉(1975)과 玄平孝의 〈濟州島方言의 命令法語尾〉(1977)와 특이한 形態로 나타나는 〈濟州島方言 ‘저·주’에 대하여〉(1977)가 있다. 이밖에 金榮敦의 〈제주도 방언의 어미활용〉(1956), 金文奎의 〈耽羅方言試攷〉(1962), 姜根保의 〈濟州島方言 ‘있다’活用考〉(1972) 등이 있다.

尊待法에 관한 연구로는 對者尊待法을 考究한 玄平孝의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1974)를 비롯하여 尊待法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 〈濟州島方言의 尊待法〉(1974)이 있다. 姜根保는 〈濟州島方言 語彙考(II)〉(1975)에서 尊待의 뜻을 표시하기 위한 ‘마씀’에 대하여 活用語尾와 體言에서의 結合樣相을 共時的으로 기술하고 文獻語와 對比, 그 形成과 方言化를 고찰한 바 있다. 이밖에 金귀자의 〈제주도 방언의 존경접미사연구〉(1973)도 보인다.

特殊補助語幹에 대한 考察로 朴用厚의 〈濟州方言의 特殊補助語幹에 대하여〉(1965)가 있으며 動詞의 終止法 屈曲接尾辭에 관한 연구로 康貞姬의 〈제주방언의 동사류접미사연구〉(1975)가 있다. 文尾에 연결되어 다양한 기능을 하는 添辭에 대하여서는 金昌集의 〈濟州島方言의 添辭研究〉(1980)도 보인다.

이 方言의 形態素問題를 다룬 玄平孝의 〈濟州島方言 形態素의 異形態에 대하여〉(1966)와 〈濟州島方言 形態構造의 調查研究〉(1971)도 특기할 만하다.

### 2.3. 統辭論

統辭論에 관한 연구는 이 방언의 文法論分野에서 제일 不振한 實情에 있다. 이 점은 統辭論이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다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유한 문제라고 본다.

이 방언에 대한 統辭論은 成洛秀의 〈濟州島方言의 統辭論의 研究〉(1975)가 보일 뿐으로, 生成文法의 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理論導入問題에 있어서도 특기할 만한 研究이다.

文法論分野에서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統辭論에 관한 연구는 全無하다시피한 형편이며, 各種 接尾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문법이론이 창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연구방법 및 척도가 되는 이론과 함께 연구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시기라고 본다.

### 3. 語彙論

語彙論에서는 자료집을 포함함은 물론, 편의상 地名까지 걸드리어 기술하고자 한다.

이 방언 어휘 자료집으로는 石宙明의 《濟州島方言集》(1947)을 비롯하여 朴用厚의 《제주방언연구》(1960), 玄平孝의 《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 資料篇)》(1962)이 있다. 전국방언어휘집이긴 하지만 金亨奎의 《韓國方言研究》(1974)와 崔鶴根의 《韓國方言辭典》(1978)도 참고가 될 것이며 비교적 방언 원음 그대로 轉寫된 자료집도 도움이 될 것이다.<sup>9)</sup>

語彙에 대한 연구는 特殊語에 대한 고찰부터 출발되었다. 金文奎의 〈耽羅方言試攷〉(1962)가 그 좋은 예이며 張泰鎮의 〈濟州島海女集團의 特殊語에 대하여〉(1969), 石宙明의 〈濟州島方言과 馬來語〉(1950), 馬名에 대한 金文奎의 〈國語學과 濟州島〉(1962), 玄吉彥의 〈제주도 학생사회의 俗語形態〉(1969)도 여기에 속한다. 姜根保도 〈濟州島方言語彙考〉(1972)에서 기초어휘항목 219개에 대한 문헌어와 표준어와의 대비를 통해 方言의 多變性과 古語維持性을 밝히고 있으며, 그외로 〈語彙散考〉(1963)도 있다. ‘나물’語詞에 대한 語源과 ‘나무·나물’語詞를 통하여 그 어휘들의 國語史的 位置와 層位學的 考察을 시도한 玄平孝의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물’語詞에 대한 語源的 考察〉(1968), 〈濟州島方言의 言語層位學的 考察〉(1968),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무’와 ‘나물’語詞에 대하여〉

9) 예를 들면,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秦聖麒; 「南國의 民謠」, 螢雪出版社, 1976.

玄容駿;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0.

玄容駿·金榮教;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1981.

(1969), 〈濟州島方言의 層位學的 考察〉(1971)이 있다.

이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研究로는 이 방언의 日本語語詞 借用에 대한 포괄적인 시도를 한 金完鎭의 〈濟州島方言의 日本語語詞 借用에 대하여〉(1957)가 있으며 語詞構成에 대한 金公七의 〈濟州方言의 語彙論的 研究〉(1965)도 있다. 외국인의 연구로 기초어휘의 통계학적 고찰을 시도한 梅田博之의 〈朝鮮語諸方言の基礎語彙統計學的研究〉(1963)도 보인다.

地名에 관한 연구도 여러 편이 보이긴 하지만 다각적인 분석은 아직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濟州島 地名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秦聖麒의 《제주도 지명의 유래》(1960)이며 沈汝澤의 〈濟州島地名研究〉(1972)와 〈濟州島地名의 構成〉(1975)에 관한 고찰이 있고, 地名에 붙는 特殊地名接尾辭에 대한 연구로 金洪植의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대하여〉(1978)가 있다. 최근의 연구로 이 방언의 系統까지 언급한 崔範勳의 〈濟州島 地名研究〉(1980)도 있다.

이밖에 제주도의 옛 名稱인 ‘耽羅’에 대한 연구로 朴用厚의 〈耽羅名義考〉(1968), 金泰能의 〈耽羅呼稱에 대한 私考〉(1964), 玄平孝外 2 人の 〈耽羅의 學藝·言語·宗教의 研究〉(1971)와 〈耽羅의 語義에 대하여〉(1972) 등이 있다.

어휘에 관하여 특기할 만한 연구도 보이지만 特殊語에서 출발하여 特殊語로 끝난 감이 있으며 意味論의 領域까지 언급한 고찰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地名에 관한 연구도 체계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 4. 系統論

제주도 방언의 系統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뤄져 왔다. 金公七의 일련의 연구 곧 〈耽羅語研究序說〉(1967), 〈耽羅語研究〉(1967), 〈耽羅語와 Ainu 語와의 水深測量〉(1969), 〈耽羅語와 半島 言語와의 關係〉(1969)와 玄平孝外 2 人の 〈耽羅의 學藝·言語·宗教의 研究〉(1971), 崔範勳의 〈濟州島 地名研究〉(1980) 등이다.

한 방언의 系統에 관한 연구인 만큼 이 방언에 대한 系統論이 확고하게 수립이 되려면 제주도에 대한 人文·사회 과학 諸分野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 IV. 口碑文學

해방후 제주도 口碑文學의 研究動向을 民謠·說話·巫俗·俗談 其他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우선 지적해야 할 바는 口碑文學은 사실로써 노래되거나 말해지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文學임과 동시에 民俗이다. 따라서 口碑文學은 民俗안에 같이 포괄하여 다루어도 괜찮겠지마는 이렇게 독립시키는 까닭은 그 작업비중으로 보아 비교적 활발하기 때문이다. 民俗研究에 뜻을 두는 분들이 國內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우선 口碑文學의 수집에서부터 관심을 쏟아 왔으니, 여기에는 國語國文學專攻者들이 이의 조사 연구에 참여해 오는데 연유하는 터이다.

##### 1. 民謠

民謠 수집은 비교적 일찍부터 서둘러졌다. 해방전에도 물론 그 자료보고가 띄엄띄엄 이루어졌거니와 1955년 전후해서 몇몇 분들의 출기찬 관심에 따라 우선 그 자료수집이 착수되기 비롯했다. 秦聖麒의 《濟州島民謠集》(1958)이 프린트판으로 몇 권 나오고 韓容柱 수집, 金永三編의 《濟州島民謠集》(1958)이 나오기 시작할 무렵 洪貞杓의 《濟州島民謠解說》(1963), 金榮敦의 《濟州島民謠의 特色》(1964) 등이 나타나면서 민요의 감상과 체계 있는 理論的 作業이 出帆했다. 이러한 가운데 金榮敦의 《濟州島民謠研究(上)》(1965)은 제주도민요의 성격에 알맞는 分類와 더불어 노래 한 편 한 편을 온통 標準語로 語釋했는가 하면, 註解를 덧붙이고 提報者를 밝히는 등, 한 지역 민요를 집중적으로 조사, 정리하는데 한 표본을 세웠다.

民謠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들에 따라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 연구들은 어느 한 종류의 노래를 현지답사에 따라 집중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노래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개관하면서 그 민요에 담긴 民衆意識의 한 모서리를 말하는 데 그치고 있다.

金文奎의 〈耽羅民謠小考〉(1956), 姜時宅의 〈濟州島民謠의 特色〉(1957) 崔鶴璇의 〈濟州民謠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1958), 申斗憲의 〈濟州島民謠의 研究〉(1962 碩士論文), 〈濟州島民謠의 特質研究〉(1966), 林憲道の 〈耽羅民謠小考〉(1957), 〈民謠에 나타난 濟州島民의 生態〉(1959), 〈韓國民謠의 分析的 考察: 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1964), 〈濟州島女性의 嘆息謠 考察〉(1965), 〈濟州島民謠의 類別的 考察〉(1967, 1968), 〈嘆息謠에 관한 研究: 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1971), 〈濟州島民謠研究: 嘆息謠를 中心으로〉(1978) 등이 보인다. 林憲道는 博士學位論文으로 〈韓國民謠研究〉(1974) 를 썼는데, 이는 주로 가락을 분석한 것으로서 대체로 제주도 민요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左永助의 〈韓國民謠研究: 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1965), 姜龍祐의 〈民謠에 投影된 地域社會人의 意識構造와 Communication 活動: 濟州島民謠에 대한 內容分析〉(1972) 등의 碩士學位論文이 나타나면서 제주도 민요도 점차 深化되어 가는 가운데 姜昌赫의 〈濟州島民謠의 性格: 濟州島民謠에 反映된 島民性〉(1978) 등의 글도 나타났다. 平面的인 서술이긴 하지만 高橋亨의 《濟州島の民謠》(1974)도 기억해야 한다. 이는 1928년 현지 조사하여 확보된 자료를 1932년 집필하였고 1968년 天理大學 東洋學研究所에서 발간된 것을 1974년 寶蓮閣에서 복사한 것이다.

金榮敦의 民謠에 대한 研究는 근 20년간 줄기차게 이어졌는데 역시 노래에 담긴 民衆意識을 살피는 데 관심이 쏠려졌다. 〈濟州島民謠에 있어서의 譬喩法修辭〉(1960), 〈濟州島民謠論: 멧돌·방아노래편〉(1961·1962), 〈濟州島民謠論: 멧돌·방아노래와 功利性〉(1962), 〈濟州島民謠에서 본 어머니사랑〉(1962), 〈濟州島民謠와 島民의 夢〉(1962)에 이어 〈濟州島民謠의 種類上 特色〉(1963), 〈濟州島民謠의 內容上 特色〉(1963), 〈濟州島民謠의 形態上 特色〉(1963) 등을 발표했으나, 이 세편은 《濟州島民謠의 特色》(1964)이란 자그만 책자로 묶이기도 하였다. 잇따라 〈濟州島民謠의 分布와 風土〉(1964), 〈제주도 민요와 現實性〉(1964), 〈濟州島 民謠에서의 不敗의 信念〉(1964), 〈俗談과 民謠의 交流〉(1966), 〈濟州島民謠에 비친 서울〉(1968), 〈제주도 민요와 石多〉(1970), 〈멀치 후리는 노래〉(1970), 〈이어도小考〉(1972), 〈제주도 민요의 位相〉(1972), 〈밭밟는 노래〉

(1974), 〈오돌또기〉(1975), 〈濟州島の 勞動謠〉(1976), 〈濟州島民謠研究〉(1977)를 잇따라 발표하는 가운데 〈濟州島民謠에 드러난 生活觀〉(1978) 등의 힘들인 작업도 이루어졌고 濟州島民謠와 俗談의 交流를 살펴본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1979)라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民謠를 통해서 본 耽羅精神〉(1979), 〈제주도 민요 맷돌밤아노래〉(1980)등 꾸준한 활동이 이어져 가고 있다.

자료조사도 쉬임없이 이어져 갔으니, 韓國文化人類學會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는 金榮敦이 民謠를 담당하여 해녀노래 등 7종의 민요를 수집, 보완하였으며,《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1973)에서는 秦聖麒가 맷돌·밤아노래를 보고한 바 있다. 1972년 이래 여덟차례에 걸친 濟州大學 國語國文科와 國語教育科에서 여름방학마다 해마다 실시하는 現地學術調查의 조사결과를 묶은 《國文學報 7》(1975), 《學術調查報告書 5》(1976), 《學術調查報告書 6》(1978) 등에서는 中文·蘭山城邑의 民謠·童謠가 수집,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濟州大學 民俗博物館文化財研究會의 《海村生活調查報告書》에서 역시 龍水里의 民謠·童謠가 수록되어 있다.

1979년부터는 現場論的 調查方法에 따라 立體的 調查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研究室 주도로 실시되어 갔다. 여기 民謠는 金榮敦·姜榮峯·邊聖久가 擔當했다. 1979년에는 北濟州郡, 1980년에는 濟州市, 1981년에는 南濟州郡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미 《韓國口碑文學大系, 9-1 濟州道北濟州郡篇》(1980), 《韓國口碑文學大系, 9-2 濟州道濟州市篇》(1981)으로 간행되었다. 조사마을소개, 提報者調查, 口演狀況 등이 일일이 밝혀졌는가 하면, 노래하는 실황 그대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드높을 줄 안다.

民謠는 文學이요 民俗이면서 동시에 音樂이다. 民謠의 研究는 따라서 그 音樂的 側面을 외면할 수 없다. 金國培가 제주도민요의 採譜와 編曲에 선봉을 섰던 일이 있었으며, 羅運榮은 1960년대 10여년간 내내 제주도 곳곳을 누벼 다니면서 제주도 민요를 꾸준히 수집하고 난 다음 이의 분석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일부는 〈濟州島民謠의 作曲學的 研究(1): 音樂構造를 中心으로〉(1972)라는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李輔亨이 《韓國民俗

綜合調查報告書》(1974)에서 音樂과 무용을 말아 (第五篇 民俗藝術) 제주도의 民謠·童謠와 巫俗音樂을 조사보고한 바 있다. 宋正彥의 〈濟州島 民謠의 가락에 대한 考察〉(1973)이나 櫻井哲男의 〈韓國濟州島に現存する 作業唄について〉(1976) 역시 본인들의 답사 녹음된 자료를 그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民謠를 음악적으로 연구하는 服部龍太郎가 제주도를 잠깐 다녀가더니 《濟州島民謠紀行》(1972)을 낸 바 있다.

민요의 가락에 대한 조사 연구는 1981년에 이르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藝術民俗室에서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곧 《韓國民俗音樂大觀》出版을 위한 제 1차년도 조사사업으로서 韓萬榮·權五聖·李輔亨·金榮敦이 제주도 일원에 걸쳐 광범한 녹음을 실시했고 이의 採譜와 音樂的 分析作業은 지금 서둘러지고 있다.

童謠는 넓은 뜻의 民謠 속에 포괄되기는 하지만 그 성격상 역시 민요와는 구분된다. 童謠는 그 수집부터 民謠蒐集의 庶子格으로 끼어들어 왔음은 비단 제주에서만 아니다. 童謠에 대한 독자적인 수집과 연구가 절실함은 썩 강조할 만하다. 玄吉彥의 〈濟州島 어린이 遊戲謠考: 오늘날의 유희요소 에 나타난 社會參與問題〉(1964)가 있는 이후 한참 잠자코 있다가 金榮敦에 의하여 〈韓國傳承童謠蒐集研究經緯〉(1980), 〈韓國傳承童謠에 드러난 靑少年의 意識〉(1980), 〈韓國傳承童謠의 傳承變異〉(1981), 〈韓國傳承童謠와 動植物〉(1981), 〈童謠: 韓國民俗大觀Ⅵ〉(1981) 등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그 자료로서 제주도 동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제까지 해방후 제주도민요 수집·연구에 대한 개관을 보아 왔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여 민요의 자료수집이 꽤 진전된 것만은 확실하지만, 아직도 그 자료수집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人力과 시간과 경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첫째로 지적해야 할 과제다. 그 둘째는 이제까지의 민요연구가 민요에 담긴 民衆意識을 밝히는 데 역점 두어 왔지, 민요를 그 종류별로 부르는 機緣, 勞動과의 상관, 唱法, 사설분석, 傳承實態 등에 대하여 차곡차곡 분석해 내는 작업은 일부에 그쳤다. 이는 시급한 課題로 남겨졌다. 세째는 傳承童謠의 수집과 그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說話·巫歌

여기 說話는 神話·民譚·傳說을 포괄한다. 說話에 대한 수집·연구는 1950년대 말부터 몇몇 분에 따라 일기 시작하였다. 濟州大學 國語國文學科에 在職中이던 張壽根은 〈濟州島女神考〉(1957), 〈三姓神話解釋의 한 試圖〉(1960), 〈濟州島巫歌〉(1960), 〈濟州天地創造說話의 文化領域性〉(1969) 등의 논문을 내는 한편 說話수집·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秦聖麒는 《南國의 傳說》(1959), 《南國의 巫歌》(1,2,3집, 1960), 《南國의 神話》(1964), 《南國의 民譚》(1976) 등 귀중한 자료집을 잇따라 펴 내었고, 玄容駿은 〈濟州島堂神話考〉(1962), 〈본풀이와 紋事詩〉(1962), 〈巫俗神話 본풀이의 形成〉(1963), 〈본풀이의 形式과 內容〉(1963), 〈堂神話의 motif와 基本形式〉(1963), 〈堂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民俗信仰〉(1964), 〈堂子의 儒式化와 三姓神話〉(1964), 〈濟州島神話에서 본 婚姻〉(1967), 〈濟州島神話와 開關神話〉(1971) 등 巫俗神話 본풀이의 분석에 치밀한 작업을 이어갔다.

이밖에 李東林의 〈濟州島神話에 對한 管見：良·高·夫乙那稱號를 中心으로〉(1958), 鄭漢淑의 〈濟州島의 民俗과 文學：神話·傳說·說話를 中心으로〉(1964), 任東權의 〈설문대할망說話考〉(1964), 李琪亨의 〈濟州島傳說에 나타난 死生觀〉(1964), 〈濟州島傳說의 諧謔性〉(1967), 〈제주도전 설속의 反抗정신〉(1969), 李三悅의 〈傳說과 民間信仰：濟州道の 경우를 중심으로〉(1968), 梁重海의 〈三姓神話와 婚姻址〉(1970), 金美蘭의 〈三姓神話에 대한 考察：주인공의 문제를 중심으로〉(1974), 薛盛瓊의 〈民譚과 濟州巫歌의 共時的 研究〉(1975), 李杜鉉의 〈善妙와 광청아기說話〉(1980) 등이 보인다.

玄容駿에 의하여 《濟州島神話》(1976), 《濟州島傳說》(1976)이 동시에 나오므로써 그 자료정리에 획기를 이룩되었는가 하면, 이는 《濟州島의 民話》(1979)로써 日譯되기도 했으며, 그의 《濟州島巫俗資料事典》(1980)은 巫俗본풀이 연구에 다시없는 快著라 할 것이다. 이 著書는 濟州도의 巫俗研究에는 말할 것 없거니와, 韓國의 巫歌나 巫俗研究에 있어서도 珍重하게 이

용될 저서라 할 것이다.

〈고종달(胡宗旦)型 說話에 나타난 濟州民의 意識構造〉(1977), 〈風水(斷脈) 說話에 대한 一考察〉(1979), 〈힘내기型傳說의 構造와 그 意味〉(1980) 등 深層分析의 일련의 論文을 발표해온 玄吉彦은 이를 집약해서 《제주도의 장수설화》(1981)를 출판했다.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는 任哲宰가 說話를 담당하여 〈자칭비〉 등 14편이 수집 보고된 바 있으며, 1972년 이래 여름방학 때마다 실시하는 濟州大學 國語國文科와 國語教育科에서 그 조사결과를 낸 《國文學報 4~7》 및 《學術調查報告書 5~6》에서는 倉川·牛島·加波島·中文·蘭山·城邑 등의 說話가 채록되기도 했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研究室에서 現場論的方法에 따라 1979년 이래 3년간 본격적으로 실시된 바 있었던 口碑文學 조사에 있어 說話部門은 玄容駿·金榮教·玄吉彦·高光敏 등이 담당했다. 여기에서는 方言 그대로 그 原音表記도 엄격히 지켜졌거니와, 조사마을소개, 提報者調查, 口演狀況 등이 소상히 밝혀짐으로써 現場感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자료로서 소중한 활용될 것이며 方言研究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상 說話部門의 조사연구동향을 간추려 본다면, 巫歌에 대한 자료수집과 이론정립이 가장 활발한 한편, 傳說이나 民譚, 특히 民譚 조사연구는 그 자료확보부터 비교적 부진한 경향임을 첫째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는 巫歌表記의 경우는 한결같이 原音表記를 지켰지마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韓國口碑文學大系 9-1, 9-2》(1980·1981), 진성기의 《南國의 民譚》(1976)을 제외하면 原音表記를 지킬 수 없었음이 한 과제라 할 것이다.

### 3. 俗談·수수께끼·禁忌語·其他

民謠·巫歌·說話 이외의 口碑傳承에 대한 작업으로는 별진전이 없다. 金思燁의 《俗談論》(1953)의 〈多島海 俗談의 地方的 特色〉에서 제주도 속담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는 이후 俗談에 대한 집성으로 秦聖麒의 《제주도

속담집 1·2》(1958) 외로 韓國文化人類學會의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 俗談分野를 張德順이 담당하여 99 편을 수집, 수록한 바 있다. 玄容駿의 〈濟州島俗談의 特色〉(1958)이 보이며 金榮敦의 〈俗談과 民謠의 交流〉(1966),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1979) 등에서는 俗談이 民謠와 어떻게 交流되는가 그 실태를 살핀 바 있다.

근래 高在奐이 800 여편의 俗談을 수집, 보완해서 〈濟州島 俗談의 特性〉(1981)과 〈濟州島의 女性俗談〉(1981)을 씀으로써 俗談研究도 제자리를 定立하기 시작했다.

수수께끼는 秦聖麒의 《韓國의 수수께끼》(1972)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 張德順이 수집한 자료가 수록되었을 뿐, 이에 대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禁忌談의 수집·연구는 濟州大學 國語國文學科에서 安德面 倉川里 調査報告時 수집정리한 《國文學報 4》(1972)가 있으며, 秦聖麒의 《南國의 禁忌語研究》(1972)가 있을 정도다. 金榮敦의 〈韓日妊婦의 禁忌〉(1977)에서도 한국의 자료는 제주도에서 얻은 바 자료가 주축을 이룬다.

이상을 간추려 보면 文學의 한 갈래인 口碑文學은 또한 民俗이라 불 때에 제주도에서는 口碑文學의 자료수집과 그 정리가 口碑文學外의 民俗에 비하여 앞섰음을 첫째로 지적할 수 있다. 그 둘째는 口碑文學 가운데서도 民謠나 巫歌, 곧 노래의 辭說 수집, 연구가 說話 곧 이야기의 수집보다 진전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俗談·수수께끼·禁忌談 등의 자료 수집이나 연구는 뒤진 편이다.

## V. 民俗分野

民俗學은 民間生活一般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썩 넓다. 가장 그 조사연구가 앞섰고 활발했던 口碑文學을 독립시키고 나서 社會, 民間信仰, 生産技術, 衣食住, 民俗藝術 및 歲時風俗 등으로 나누어 그 연구동향을 대강 살피기로 한다.

## 1. 社會

제주도 사회에 대한 조사, 연구는 石宙明의 《濟州島 生命調查書》(濟州島人口論: 1949)가 있는 이후 文化人類學的 接近이 이루어진 것은 泉精一の 《濟州島》(1966)가 나오면서부터다. 이는 泉精一이 1936年 前後하여 일차 답사했던 바를 기초로 1965년에 再調査 補完하고 이루어진 성과다.

現地學者들에 따른 기념비적 결실은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1973)인데 社會分野는 玄容駿, 通過儀禮는 金榮敦이 담당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진 바탕에는 玄容駿의 〈濟州島 海村生活의 調查研究 I·II〉(1970) 및 金榮敦의 《濟州島民의 通過儀禮》(1966) 등의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졌음에 밀받침된다. 잇따라 韓國文化人類學會에서 간행된 바 있는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는 部落組織과 家族·親族組織을 뭉뚱그린 社會와 通過儀禮를 李光奎가 담당했다.

1972년부터 줄곧 이어져오는 濟州大學 國語國文學科에서 倉川·牛島·加波島·中文·蘭山·城邑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國文學報》와 《學術調查報告書》로 내고 있는데 각각 社會背景調査에 결들여 가끔 家族構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濟州大學 民俗博物館 文化財研究會에서 龍水里와 吾照里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 《海村生活調查報告書》(1978)에서도 社會와 家族構造를 그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약 500년의 도움지인 表善面 城邑里를 다룬 金榮敦의 《旌義고을》(1973)에서는 한 지역을 대상으로 民族誌的 方法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했는가 하면, 이를 축약하면서 翰林邑 東明里와 上明里를 덧붙인 《民俗村指定保存에 따른 指定對象村落概要 및 그 保存方向》(1976)이 있다.

요마적에 이르러 도민의 傳來的 民衆意識을 살피려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濟州大學 耽羅研究所의 《耽羅精神探究》(1979)와 濟州大學 統一安保研究所의 《濟州道民의 意識構造調查研究》(1979)는 주목할 만한 작업이다. 또한 玄容駿의 〈濟州島의 基層文化〉(1975), 秦聖麒의 〈三다가 빛어낸 島

민의 生態〉(1962), 金榮敦의 〈城邑里民의 住民意識〉(1974), 姜元植의 〈漁村住民의 郷土意識에 관한 研究〉(1977), 申幸澈의 〈제주도민의 社會文化意識上의 傳統性: 社會調查資料의 分析을 中心으로〉(1980), 高南旭의 住民意識構造面에서 본 地域開發行態에 관한 調查研究〉(1980), 玄吉彥·金永和의 〈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精神考究: 堂神 본풀이와 人物(壯士) 傳說을 中心으로〉(1981) 등의 작업이 있다. 老人問題를 꾸준히 다루어오는 韓昌榮의 《濟州道老人論攷》(1978) 역시 새로운 개척이다.

家族·親族分野의 작업도 점차 성숙해서 70년대말에 이르러서는 崔在錫의 《濟州島의 親族組織》(1979)이 나왔다. 이는 그가 꾸준히 작업을 이어온 바 〈濟州島 潛嫂家族의 權力構造〉(1975), 〈濟州島의 長男家族〉(1976), 〈濟州島의 部落內婚과 親族組織〉(1977), 〈濟州島의 離·再婚制度和 非儒敎의 傳統〉(1977), 〈濟州島 農村家族의 現實的 類型〉(1977), 〈濟州島의 妾制度〉(1978), 〈濟州島의 祖上祭祀와 親族構造〉(1978), 〈濟州島의 養子制度〉(1978), 〈親族生活〉(1980) 등의 結晶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崔在錫의 《濟州島의 親族組織》이 나온 다음 學界에서는 한참 論難이 일었다. 金漢九가 이 저서의 書評을 《韓國學報》(제 19집, 1980 여름)에 쓰자, 崔在錫은 역시 《韓國學報》(제 20집, 1980 가을)에 〈社會科學의 基礎素養: 濟州島의 親族組織에 대한 김한구씨의 書評의 경우〉를 씀으로써 이에 맞섰다. 그 論議는 한참 이어져 나갔으니 金漢九의 〈傳統文化에 관한 社會認識學的 考察: 三達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1981)는 그 한 본보기다. 日人學者 몇몇 분이 제주도의 민속조사연구차 1970년을 전후하여 찾아드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竹田旦·佐藤信行 등에 따라 家族·親族調査는 이어져 왔으며, 佐藤信行의 〈濟州島の家族〉(1973), 〈濟州島の家族と親族: 〇村の事例〉(1973), 〈濟州島の家族: 〇村の事例から〉(1973) 등의 작업이 보인다. 이밖에 玄容駿에 따른 〈Family and Religion in South Korea Chiefly Based on Cheju Island〉(1972), 李且淑의 〈우리 나라 女性의 法的 地位와 濟州島의 蓄妾의 慣行〉(1968), 秦聖麒의 〈濟州島의 生活과 契〉(1975), 金良順의 〈濟州道の 家族生活實態一部에 관한 研究〉(1977), 金惠淑의 〈濟州道 家庭에서의 夫婦關係〉(1977) 등이 보인다.

通過儀禮分野는 제주도민의 通過儀禮 全般을 조사 개관한 金榮敦의 《濟

州島民의 通過儀禮》(1966)에서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韓國民俗綜合 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는 通過儀禮調查를 李光奎가 담당했고 高富子は 〈濟州島의 産前俗〉(1976), 〈濟州島의 産後俗〉(1976), 〈濟州島의 育兒俗〉(1977), 〈濟州島의 婚俗〉(1978) 등 줄기찬 작업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金基男·모수미의 〈濟州地域의 食品禁忌에 관한 調查研究: 分晩期를 中心으로〉(1977), 金基男의 〈濟州地域의 離乳實態 및 食品禁忌에 관한 調查研究〉(1979), 〈濟州地域의 食品禁忌에 관한 調查研究〉(1977) 등이 보인다. 婚禮調查研究로는 崔在錫의 〈濟州島의 婚姻儀禮와 그 社會的 意義〉(1977), 〈濟州島의 死後婚〉(1978), 姜榮鍾의 〈추자도의 婚俗〉(1976), 姜恩淑의 〈서울市와 濟州市의 未婚男女의 結婚觀에 관한 研究〉(1981) 등이 있으며, 喪禮에 관해서는 金仁濟, 秦元日 등의 관심의로 학생논문이지만 金己太의 〈濟州島 喪禮의 實態와 그 特色〉(1977)이 있다.

社會分野의 조사연구는 이제 그 기반이 닦여져 가는 과정이면서도 家族·親族關係는 새 進境을 보이는데 하면, 通過儀禮研究는 특히 喪禮에 진전이 없다

## 2. 民間信仰

民間信仰分野는 비교적 그 조사연구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張壽根에 의하여 착수되기 시작한 民間信仰研究는 秦聖麒에 따라 자료정리와 연구가 진전되었고 玄容駿의 깊이 있는 연구로써 체계화되어 갔다. 〈濟州島女神考〉(1957)를 일찌기 쓰기 시작한 張壽根은 〈濟州島巫歌〉(1960), 〈濟州島巫俗의 地域性에 대하여〉(1964), 〈濟州島巫俗의 도계비信仰에 대하여〉(1972) 등의 논문을 발표하는 가운데 1973年 學位論文 《韓國의 民間信仰》 역시 그 대부분은 제주도 무속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진성기의 《南國의 巫歌》(1960)는 귀중한 자료를 집성해 놓은 작업이며, 이의 考究로는 《南國의 巫俗》(1966)이 있다. 玄容駿·金榮敎의 《제주도 무당굿놀이》(1965), 玄容駿의 《토산당굿》(1966)이 있는 이후 《靈을 招く: 韓國의 シャーマン》(1977)과 특히 《濟州島巫俗資料事典》(1980)의 力著로써 제주도의 巫俗研究는 틀이 잡혀 갔다.

玄容駿은 〈濟州島 巫神의 住處〉(1965) 〈濟州島의 巫覡〉(1965), 〈濟

濟州島의 巫俗儀禮》(1965), 〈濟州島 巫俗의 疾病觀〉(1966), 〈濟州島 무당굿놀이 概觀〉(1966), 〈濟州島 海村의 巫俗信仰實態〉(1968), 〈濟州島巫覡의 職能者로서의 性格〉(1969), 〈濟州島巫儀의 ‘기메’考〉(1969), 〈濟州島의 영등굿〉(1969), 〈濟州島の巫俗: その儀禮形式に見える 信仰複合〉(1972), 〈濟州島사마니즘의 部落守護神形成〉(1973), 〈濟州島巫俗의神々〉(1973), 〈神房과 사만〉(1973), 〈濟州島巫俗의 比較研究 I·II·III〉(1973~4), 〈濟州島のシンバン〉(1975), 〈濟州島巫俗儀禮研究〉(1976) 등의 작업이 성실하게 이어져 갔다.

秦聖麒은 〈濟州島巫俗考: 심방편〉(1963), 〈濟州島巫俗考: 본풀이를 중심으로〉(1964), 〈濟州島民과 巫俗信仰〉(1964), 〈堂神의 思想的 背景〉(1964), 〈本島巫俗神話와 祭次의 實態〉(1965), 〈新舊間과 民俗信仰〉(1967), 〈濟州島巫俗信仰의 意義〉(1968), 〈제주의 포제당과 부락제〉(1969) 〈濟州島民의 生活과 巫俗〉(1971), 〈耽羅先住民의 文化的內面: 特に民俗信仰面を中心として〉(1968), 〈濟州島高山里民俗信仰〉(1971) 등을 발표했다.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報告書》(1973)에서의 巫俗과 家庭·部落信仰은 玄容駿이 담당했고 通過儀禮는 金榮敦이 다루었는가 하면,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는 民間信仰을 張壽根·玄容駿·崔吉誠이 담당했고 李康五가 新興宗教를 다루었다. 新興宗教에 대한 考究로는 또한 秦聖麒의 〈濟州島와 新興宗教〉(1965)가 있다. 이밖에 서울大學校 濟州學友會의 조사보고서 《濟州神堂의 內容 및 現況調查報告書》(1973)가 있는가 하면, 李鳳俊의 〈濟州島始祖神에 대한 一考: 三姓穴由來를 中心으로〉, 金泰坤의 〈濟州島 神堂의 懸納俗考〉(1966), 金榮敦의 〈資福彌勒〉(1977) 등이 있다. 民間醫療部門으로는 秦泰俊에 의한 《濟州道民間療法》(1977), 《健康과 民間療法》(1980)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 3. 生産技術

海女研究를 제외한 生産技術에 대한 조사는 不振한 상태다.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報告書》(1973)에서 玄容駿·진성기·金榮敦 등이 農業·漁業·狩獵·採集·民俗工藝를 담당했고, 《韓國民俗綜合調查

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 김광언(農耕)·진성기(水産)가 맡아 조사했고 진성기의 《濟州島民俗遺物》(1965)이 있을 정도다. 김광언에 따라 제주도 農具調査가 비로소 체계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셈인데, 단편적인 조사는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의 조사보고서 등에 드러나 있을 뿐 民具調査 研究作業은 아직 틀이 잡히질 못했다.<sup>10)</sup>

海女の 權益問題를 주로 다룬 康大元의 《海女研究》(1970) 외로 民俗의 側面的 海女研究는 金榮敦에 따라 이어져 갔다. 그 주요 논문을 든다면 〈海女の 漁撈方法〉(1970), 〈海女の 收益侵害〉(1970), 〈海女研究序說〉(1970), 〈濟州島 海女の 出稼〉(1971), 〈海女노래와 海女〉(1977) 등이다. 이밖에 高翔龍의 〈韓國入漁慣行權에 關한 研究〉(1967), 洪性穆의 〈海女와 漁場〉(1962), 洪喜久의 〈本道出稼海女の 權益問題〉(1968), 閔京姪의 〈韓國海女の 歷史 및 生活狀態〉(1964), 洪明杓의 〈濟州道 海女の 權益被奪에 關한 研究〉(1977) 등의 작업이 보인다. 1970년대 초 몇 해에 걸쳐 日本 阪南大學의 環太平洋文化研究所에서 제주 해녀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 일부는 稻田菊太郎의 〈濟州島 潛女集落 I·II〉(1973, 1976)으로 집약되어 있다. 海女器具 조사차 몇 차례 드나들던 田邊 浩는 〈濟州島の海女にみられる民俗の類似性〉(1974)을 발표한 바 있다. 또 趙惠靜의 學位論文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Focused on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1979)도 주목할 만한 작업이다.

#### 4. 衣食住

衣食住에 대한 조사·연구는 1970년대초에 이르러 활발해져 갔다. 衣生活에서 高富子는 〈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研究〉(1971)를 碩士論文으로 낸 다음에 〈濟州島民의 服飾〉(1975), 〈通過儀禮服의 研究〉(1980) 등의 작업을 이어갔으며 梁南順의 〈濟州道農村勞動服의 物性に 關한 實驗的 研究〉(1975), 〈濟州道 女性의 衣生活意識에 關한 研究: 主婦와 女教師를 中心으로〉(1976), 鄭三好의 〈濟州道 女大生の 衣服行動과 價値觀과의 相關

10) 이 점은 金榮敦의 “民具學的 提唱”(1976)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研究〉(1978) 등의 논문이 보인다.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1973)에서의 衣生活 조사보고는 高富子가 담당했으며,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의 조사집필은 金東旭·高富子가 맡았다.

食生活分野의 조사·연구는 별로 활발하지 못하다.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1973)에서 食生活分野를 洪陽子가 담당했고,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의 食生活分野를 黃慧성이 담당했으며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의 《韓國民俗大觀》(1980)에서도 역시 黃慧성에 따른 〈鄉土飲食〉이 보이며, 張愛深의 〈濟州道 巫俗祭祭物의 民俗學의 研究〉(1976) 등이 있다. 근래 鄉土飲食에 대한 論議와 記事(예를 들면 濟州新聞의 許榮善記者의 글) 등이 빈번한 점으로 보아, 이의 연구는 活性化 될 기쁨이 보인다.

住生活 역시 1970년대초에 그 조사·연구의 기쁨이 섰다. 위의 두가지 조사 보고서의 金正基·金鴻植에 따른 치밀한 조사보고가 수록되었는데, 특히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調查報告書》(1973)에서는 民間住宅과 權威建築으로 나누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金榮敦의 보고서 《濟州島民家四棟》(1970)과 金鴻植의 《民俗村指定保存對象地域調查報告書》(1978) 등이 있다.

### 5. 民俗藝術

民俗藝術分野의 작업도 아직껏 별로 두드러진 바 못되지만 점차 活性化되어 간다.

音樂의 경우는 羅運榮이 1960년대에 꾸준한 조사가 이어지는 가는데 그 결과를 〈濟州島民謠의 作曲學의 研究(I) : 音樂構造를 中心으로〉(1972)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는 李輔亨이 音樂과 무용을 맡았었다. 무용은 鄭炳浩에 따른 조사가 활발하다. 1981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는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藝術民俗室 주관의 韓國民俗音樂 제 1차년도 조사사업 대상지를 제주도로 잡고 韓萬榮·權五聖·李輔亨·金榮敦이 참여했는데 그 결과는 《韓國民俗音樂大

觀·濟州道篇》으로 출간된다. 民謠分野에서 지적했었지만 이밖에 金國培·宋正彥·櫻井哲男·服部龍太郎 등의 제주 민요의 音樂的 考究가 있어 왔다.

民間演戲나 民俗놀이에 대한 考究 또한 저조하다. 秦聖麒에 의한 《남국의 민속놀이》(1975), 〈濟州島立春굿놀이〉(1972)가 있고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報告書》(1973)에서는 玄容駿·秦聖麒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는 秦聖麒가 민속놀이분야를 조사·보고한 바 있다. 또한 玄容駿의 〈躍馬戲考: 영등굿에서의 競漕民俗〉, 玄春植의 〈제주도의 민속예술〉(1979~80), 金榮敦의 〈海女놀이〉(1965) 등이 있다.

民俗工藝에 대해서는 金榮敦의 《濟州島民의 民間工藝》(1967), 《濟州島의 石像·石具》(1968), 《濟州·大靜·旌義, 州縣城石像》(1972), 《研子磨》(1975) 등의 조사보고서와 〈濟州의 研子磨〉(1974) 등이 있으며,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1974)에서 民俗工藝分野를 河孝吉이 담당했었고 秦聖麒의 《濟州島民俗遺物·第一輯》(1965)이 있다. 또한 梁義淑의 〈제주도 櫃에 대한 研究: 裝飾文樣을 中心으로〉(1971) 및 文基善·梁昌普의 〈濟州道木物調查研究〉(1977) 등의 알뜰한 작업도 보인다.

## 6. 歲時風俗

제주도 민속 연구의 분야별 비중으로 보아 歲時風俗分野의 조사·연구 또한 별로 두드러지지 못하다. 秦聖麒가 《南國의 歲時風俗》(1969)을 낸 이래 위 두 조사보고서에서 이 분야를 담당했고, 洪貞杓의 〈耽羅歲時〉(1976), 李杜鉉의 〈濟州島民俗調查: 古城里와 水山里의 歲時風俗과 部落祭를 中心으로〉(1980) 등의 작업이 보인다.

## VI. 要 約

1) 이 글에서는 濟州島學術史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부로서 해방후 1970년대말까지의 方言, 口碑文學, 民俗分野에 대한 조사연구의 대체적인 흐름을 간추려 봤다. 여기서 口碑文學을 독립시키는 까닭은 비교적

그 작업이 활발했었음에 연유한다.

2) 6·25는 濟州의 文藝復興期라 볼 수 있는가 하면, 濟州의 學術界는 1950년대로 濟州大學의 開校와 더불어 출발했고 濟州大學의 成長과 발맞추어 성숙해 갔다고 볼 수 있다. 1960年代에 이르러 方言과 口碑文學의 저서가 나타남으로써 그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民俗研究에도 펼쳐 갔는가 하면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調查研究領域이 擴大, 細分되어 갈 뿐더러, 深化되어 갔다. 그리고 共同調查研究作業이 活性化되어 갔고 外國學者들이 조사차 찾아드는 일이 날이 갈수록 늘어갔다.

3) 1960년대초 일찌기 조사연구의 틀이 잡힌 濟州島方言研究는 어휘집 성과 아울러 形態論과 音韻論에 치중하여 연구되어 왔다. 統辭論과 意味論에 대한 考究가 아직껏 황무지상태인가 하면 品詞 各論의 定立, 各種 接尾辭에 대한 體系의인 研究, 子音體系의 樹立 등 많은 과제가 쌓여 있다. 國內外學者들의 관심도 줄곧 이어지고 있거니와, 國語學界의 연구추세에 따라 새 文法理論으로 제주도방언을 재조명할 제제에 놓였다고 본다. 이 모든 課題에 앞서서 方言語彙의 總體的 集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4) 口碑文學 가운데 民謠 수집 연구는 비교적 일찍부터 서둘러졌고 그 성과도 꽤 많은 편이긴 하지만, 민요 각 종류에 대한 분석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요에 담긴 民衆意識을 살피는 데 관심이 쏠려 왔다. 그리고 사실분석의 진전에 비해 音樂의 研究가 뒤늦은 편이며 童謠 수집 연구는 별로 진전이 없다. 說話에 비해 巫歌 수집 연구가 활발한 한편, 俗談·수수께끼·禁忌談 등의 조사 연구도 부진한 실정이다. 現場論的 調查方法에 따른 口碑文學調查가 착수된 것은 1979년부터의 일이다.

5) 民俗分野를 社會·民間信仰·生産技術·衣食住·民俗藝術 및 歲時風俗 등으로 나누어 볼 때 社會에서는 親族·家族分野와 通過儀禮分野가 비교적 활발한 한편, 全國的인 경향이긴 하지만 民間信仰의 조사연구 또한 꽤 진척되었다. 海女研究를 제외한 生産技術研究는 아직 뒤떨어졌고, 衣食住에서는 住生活연구가 앞선 편이다. 民俗藝術, 歲時風俗 調查 研究는 아직 부진한 상태다. 1960년대초 관심이 길어가기 시작한 民俗研究는 1970년

대에 이르러 분야별로 그 조사·연구활동이 深化되어 갔고 國內外學者들의 조사활동도 활발해져 갔다.

6) 제주도의 方言, 口碑文學, 民俗을 통틀어 그 珍重한 조사연구과제는 山積해 있다. 치밀한 분석연구작업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우선 先行해야 할 바는 그 방대한 資料集成作業이 체제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요마적에 社會變貌가 超速的이라는 데서 學術的 價値가 높은 資料가 급작스레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 資料集成作業은 集團的으로 規模있게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論 著 目 錄

## 〈方言研究論著〉

## 著書

- 金公七；「方言學」，正向出版社，1977.6.1。  
 金亨奎；「韓國方言研究」，서울大出版部，1974。  
 朴用厚；「제주방언연구」，동원사，1960.9.8。  
 石宙明；「濟州島方言集」，서울新聞社出版部，1947.12.30。  
 李基文；「國語音韻史研究」，서울大韓國文化研究所，1972。  
 李崇寧；「國語音韻論研究 第一輯·‘·’音攷」，乙酉文化社，1954。  
 秦聖麒；「제주도 지명의 유래」，제주도관광안내소，1960.10.9。  
 崔鶴根；「韓國方言辭典」，玄文社，1978。  
 玄平孝；「濟州島方言研究 第一輯·資料篇」，精研社，1962.1。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亞細亞文化社，1975.5。

## 論文

- 姜根保；“語彙散攷”，「제주도」7，제주도，1963。  
 ——；“Affix 研究”，(문교부제출보고서)，1968。  
 ——；“濟州島方言語彙攷”，「國文學報」4，濟州大 國語國文學會，1972。  
 ——；“濟州島方言 ‘있다’ 活用考”，「논문집」4，濟州大學，1972。  
 ——；“濟州島方言語彙考”，「國文學報」7，濟州大 國語國文學會，1975。  
 ——；“屬格 ‘-ne’ 의 研究”，「논문집」8，濟州大學，1976。  
 ——；“濟州島方言의 接尾辭研究”，「논문집」9，濟州大學，1977。  
 ——；“濟州島方言의 曲用에 대하여”，「논문집」10，濟州大學，1978。

- 姜榮峯；“濟州島方言의 後置詞에 관한 研究”，濟州大學 教育大學院，1981。
- 康允浩；“濟州島方言에 있어서의 共通語系語彙의 音韻體系와 그 環境에 대하여，”  
「韓國文化研究論叢」 1，梨花女大，1959.3.20。
- ；“제주도방언에 있어서의 共通어제 어휘의 음운양상”，「한글」 126，  
한글학회，1960.2.29。
- 康貞姬；“제주도방언의 동사류접미사 연구”，梨花女大 大學院，1975。
- ；“제주 方言의 時相연구”，「이화어문논집」 2，이화어문학회，1978。
- ；“濟州方言 接續文의 時制에 관한 一考”，「語學研究」 14-2，서울대  
大語學研究所，1978.12。
- ；“濟州方言의 處格 ‘-디’에 관한 一考察”，「方言」 4，韓國精神  
文化研究院，1980.9.15。
- 金公七；“濟州方言의 語彙論의 研究”，「국어국문학」 28，국어국문학회，1965。
- ；“耽羅語研究序說”，「국어국문학」 34·35，국어국문학회，1967。
- ；“耽羅語와 Ainu 語와의 水深測量”，「제주도」 38，제주도，1969。
- ；“耽羅語와 半島 言語와의 關係”，「제주도」 40，제주도，1969。
- 김귀자；“제주도방언의 존경접미사 연구”，이화여대 教育대학원，1974。
- 金文奎；“耽羅方言試攷”，「開校十周年紀念論文集」 2，圓光大學，1960。
- ；“國語學과 濟州島”，「제주도」 5,6，제주도，1962。
- 金榮教；“제주도 방언의 어미활용”，「한글」 119,121,122，한글학회，  
1956～1957。
- ；“濟州方言의 音韻概觀”，「濟州文化」 1，文總濟州支部，1957。
- 金榮振；“韓國方言研究의 史的考察”，「論文集」 6，濟州大學，1967。
- 金完鎭；“濟州島方言의 日本語語詞 借用에 대하여”，「국어국문학」 18，국어  
국문학회，1957。
- ；“國語母音體系의 新考察”，「震檀學報」 24，震檀學會，1963。
- 金昌集；“濟州島方言의 添辭研究”，「研究論叢」 1，濟州大學 教育大學院  
學友會，1980。
- 金泰能；“耽羅의 呼稱에 대한 私考”，「제주도」 13，제주도，1964。
- 金韓坤；“濟州方言 母音體系의 音響分析”，「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1980.9。

- 金亨奎；“濟州島方言”，「國語教育研究」2，濟州道國語教育研究會，1971。
- 金洪植；“‘缺’語에 대한 小考”，「논문집」7，濟州大學，1975。
- ；“語幹末 母音脫落에 대하여”，「논문집」8，濟州大學，1976。
- ；“用語의 末音母音에 대하여”，「논문집」9，濟州大學，1977。
- ；“濟州島 地方의 地名에 대하여”，「논문집」10，濟州大學，1978。
- ；“濟州島方言 ‘가쟁이’論攷”，「논문집」11，濟州大學，1979。
- ；“‘비바리’語攷”，「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1980.9。
- 朴用厚；“濟州方言의 特殊補助語幹에 對하여”，「제주도」22，제주도，1965。
- ；“耽羅名義考”，「제주도」34，제주도，1968。
- 朴址浩；“濟州島方言에서 본 ‘·’音小考”，「論文集」1，濟州實業專門大學，1976。
- 方鍾鉉；“濟州島의 方言”，「朝鮮文化叢說」，東省社，1947。
- 徐廷範；“濟州島方言 點考”，「高鳳」1-2，慶熙大學校，1957。
- ；“濟州島方言의 音韻變化攷”，「論文集」4，慶熙大學校，1965。
- ；“濟州方言의 ‘·’表記語”，「文理論叢」4，慶熙大學校，1967。
- 石宙明；“濟州島方言과 馬來語”，「語文」2-2，우리어문학회，1950。
- 成洛秀；“濟州島方言에 나타난 音韻體系”，「방언」2，延世大 方言研究會，1968。
- ；“濟州島方言의 統辭論的研究”，「국어국문학」88-69，국어국문학회，1975。
- 沈汝澤；“濟州島地名研究”，「논문집」4，濟州大學，1972。
- ；“濟州島 地名의 構成”，「國文學報」7，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75。
- 李基文；“濟州島 方言의 ‘·’에 관련된 몇 問題”，「李崇寧先生 古稀紀念國語國文學論叢」，탑출판사，1977。
- ；“加波島 方言의 特徵”，「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1980.9。
- 李崇寧；“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研究”，「東方學志」3，延世大學校，1957。
- 張泰嶺；“濟州島海女集團의 特殊語에 대하여”，「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乙酉文化社，1969。

- 崔範勳；“濟州島地名研究”，「論文集」8，京畿大學，1980。
- 玄吉彥；“제주도 학생사회의 俗語形態”，「제주도」38，제주도，1962。
- 玄容駿；“濟州島方言에서의 ‘ㅎ’考”，「國文學報」1，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56。
- ；“ㅎ插腰音에 대하여”，「濟州文化」1，文總濟州支部，1957。
- 玄平孝；“濟州島方言의 ‘ㅇ’小考”，「梁柱東博士華誕紀念論文集」，東國大學校，1963。
- ；“濟州島方言 ‘ㅞ [ε]’音에 대하여”，「國文學報」2，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64。
- ；“濟州島方言의 單母音設定”，「韓國言語文學」2，韓國言語文學會，1964。
- ；“濟州島方言 形態素의 異形態에 대하여”，「李秉岐博士頌壽紀念論文集」論文集刊行委員會，1966。
- ；“濟州島方言의 言語層位學的 考察”，「제주도」36，제주도，1968。
-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물’語詞에 대한 語源的 考察”，「제주도」37，제주도，1968。
-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무’와 ‘나물’語詞에 대하여”，「國語國文學論文集」7·8，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會，1969.12。
-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國文學報」3，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70。
- ；“濟州島方言形態構造의 調查研究”，(문교부제출 보고서) 1971。
- ；“濟州島方言의 層位學的 考察”，「池憲英先生回甲紀念論叢」，紀念論叢刊行委員會，1971。
- ；“濟州島方言의 音韻”，「교육제주」17，濟州道教育研究院，1971。
- 外2人；“耽羅의 學藝·言語·宗教의 研究”，「논문집」3，濟州大學，1971。
- ；“耽羅의 語義에 대하여”，「제주도」53，제주도，1972。
- ；“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와 文獻語의 比較研究”，(문교부 제출 보고서)，1974。
- ；“濟州島方言의 定動詞語尾研究”，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74。

- ; “濟州島方言의 活用語尾에 대한 研究”, 「논문집」 6, 濟州大學, 1974.
- ;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국어국문학」 74, 국어국문학회, 1977.
- ; “제주도 방언의 명령법어미”, 「김성배 박사회갑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7.
- ; “濟州島方言의 ‘저·주’語尾에 대하여” 「朴晟義博士還曆紀念論叢」 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研究會, 1979.
- ; “濟州島方言研究에 대한 檢討 (I·II)”, 「方言」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 洪宗林; “濟州島方言의 疑問法에 대한 考察”, 「論文集」 8, 韓國國語教育研究會, 1975.
- ; “濟州島方言의 先語末語尾 ‘-암/엄-, -암시/엄시-, -안/언- -아시/어시-’에 대하여”, 「金亨奎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1976.
- 梅田博之; “朝鮮語諸方言の基礎語彙統計學的研究”, 「朝鮮學報」 27, 日本奈良縣 天理大學 朝鮮學會, 1963.
- 安田吉實; “濟州島方言に於ける接尾辭 ‘-아기·-아지·-장이·-아치·-바치’의 考察”, 「朝鮮學報」 48, 日本奈良縣 天理大學 朝鮮學會, 1968.

### 〈 口碑文學研究論著 〉

#### 著書

- 金榮敦; 「濟州島民謠의 特色」, 濟州大學 國語國文學研究室, 1964.10.22.
- ;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朝閣, 1965.12.10.
- 金永三編·韓容柱蒐集; 「濟州島民謠集」, 中央文化社, 1958.4.1.
- 濟州大學; 「倉川里學術調查」(「國文學報」 第4輯),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2.12.25.
- 濟州大學; 「牛島學術調查」(「國文學報」 第5輯),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3.12.20.

- 濟州大學；「加波島學術調查」(「國文學報」第6輯)，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74.12.30。
- 濟州大學；「中文里學術調查」(「國文學報」第7輯)，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75.12.30。
- 濟州大學；「蘭山里學術調查」(「學術調查報告書」第5輯)，濟州大學 國語教育科，1977.6.30。
- 濟州大學；「城邑里學術調查」(「學術調查報告書」第6輯)，濟州大學 國語教育科，1978.2.23。
- 秦聖麒；「南國의 民謠」(第1·2·3輯)，제주민속문화연구소，1958.3.15。  
 ——；「濟州島俗談」(第1·2輯)，제주민속문화연구소，1958.10.26。  
 ——；「南國의 傳說」(濟州島說話集)，一志社，1959.7.30。  
 ——；「南國의 巫歌」(第1·2·3輯)，제주민속문화연구소，1960.3.1。  
 ——；「南國의 神話」(濟州島巫俗研究 第1輯)，아림출판사，1964.2.22。  
 ——；「南國의 수수께끼」，제주민속문화연구소，1972.1.20。  
 ——；「南國의 禁忌語研究」，제주민속문화연구소，1972.11.20。  
 ——；「南國의 民譚」，螢雪出版社，1976.4.15。
- 玄吉彥；「제주도의 장수설화」，弘盛社，1981.11.10。
- 玄容駿；「토산당굿」，文化財管理局，1966。  
 ——；「濟州島神話」，瑞文堂，1976.4.30。  
 ——；「濟州島傳說」，瑞文堂，1976.4.30。  
 ——；「濟州島の民話」，大日本繪畫巧藝社，1979.9.1。  
 ——；「濟州島巫俗資料事典」，新丘文化社，1980.1.25。
- 玄容駿·金榮敦；「제주도 무당굿놀이」，文化財管理局，1965。  
 ——·——；「韓國口碑文學大系 9 - 1：濟州道北濟州郡」，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0.9.25。  
 ——·——；「韓國口碑文學大系 9 - 2：濟州道濟州市」，韓國精神文化研究院，1981.11.20。
- 洪貞杓；「濟州島民謠解說」，省文社，1963.1.15。
- 高橋亨；「濟州島の民謠」，日本 天理大學東洋學研究所刊，寶蓮閣頒布，1974.10.25。

服部龍太郎；「濟州島民謠紀行」，日本 未來社，1972.5.15。

### 論文

- 姜時宅；“濟州島民謠의 特色”，「濟大學報」創刊號，濟州大學 學徒護國團，1957.10.1。
- 姜龍祐；“民謠에 投影된 地域社會人的 意識構造와 Communication 活動：濟州島民謠에 대한 內容分析”，碩士學位論文，서울大學校 新聞大學院，1972。
- 姜昌赫；“濟州島民의 性格；濟州島民謠에 反映된 島民性”，「濟州看護專門大學 學論文集」第4輯，濟州看護專門大學，1978。
- 高在奂；“濟州島俗談의 特性”，碩士學位論文，成均館大學校大學院，1981.1。  
——；“濟州島의 女性俗談”，「국어국문학」86，국어국문학회，1981.12.20
- 金文奎；“耽羅民謠小考”，「圓大學報」第1輯，圓光大學，1956.1.30。
- 金美蘭；“三姓神話에 대한 考察：主人公의 問題를 중심으로”，「延世語文學」第5輯，延世大學校 國語國文學科，1974.6。
- 金榮敦；“濟州島民謠에 있어서의 譬喩法修辭”，「국어국문학」22，국어국문학회，1960.8.31。  
——；“濟州民謠의 諧謔的 表現”，「濟大學報」3호，1960.12.5。  
——；“濟州島民謠論；맷돌밤아노래篇”，「現代文學」通卷84～87，現代文學社，1961.12.1～1962.3.1。  
——；“濟州島民謠에서 본 어머니사랑”，「제주도」2，제주도，1962.5.5。  
——；“濟州島民謠와 島民의 꿈”，「제주도」4，제주도，1962.10.1。  
——；“濟州島民謠論：맷돌밤아노래와 功利性”，「現代文學」95，現代文學社，1962.11.1。  
——；“濟州島民謠의 種類上 特色”，「제주도」9，제주도，1963.6.30。  
——；“濟州島民謠의 內容上 特色”，「濟大學報」5號，濟州大學 再建學生會，1963.9.15。  
——；“濟州島民謠의 形態上 特色”，「제주도」12，제주도，1963.12.25。

- ；“濟州島民謠의 分布와 風土”，「國文學報」2輯，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64.1.25.
- ；“濟州島民謠와 現實性”，「제주도」15，제주도，1964.7.25.
- ；“濟州島民謠에서의 不敗의 信念”，「국어국문학」27，국어국문학회，1964.8.30.
- ；“俗談과 民謠의 交流”，「제주도」27，제주도，1966.10.21.
- ；“濟州島民謠에 비친 서울”，「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1968.8.30.
- ；“濟州島民謠와 石多”，「韓國民俗學會」3，1970.12.1.
- ；“濟州島民謠의 位相”，「교육제주」18，제주도교육위원회，1972.7.10.
- ；“이여도小考”，「제주시」21，제주시，1972.11.10
- ；“발밟는 노래：차라리 한갓饗宴”，「제주도」63，제주도，1974.8.31
- ；“오돌도기”，「濟州文學」4，韓國文人協會濟州道支部，1975.10.1.
- ；“濟州島의 勞動謠”，「韓國文化人類學」8，韓國文化人類學會，1976.12.31.
- ；“멀치후리는 노래”，「제주도」70，제주도，1976.12.31.
- ；“濟州島民謠研究”，「韓國言語文學」15，韓國言語文學會，1977.12.25.
- ；“濟州島民謠에 드러난 生活觀”，「知恩邊時敏博士回甲紀念論文集」，同刊行委員會，1978.12.20.
- ；“民謠와 他口碑文學과의 交流”，「濟州大學論文集」10，제주대학，1979.2.28.
- ；“濟州島民謠에 드러난 自彊意識”，「趙演鉉博士回甲紀念論文集」，同刊行委員會，1980.7.20.
- ；“제주도민요 맺들·밤아노래”，「국어국문학」82，국어국문학회，1980.4.15.
- 羅運榮；“濟州島民謠의 作曲學의 研究(1)：音樂構造를 中心으로”，「延世論叢」9，延世大學校大學院，1972.5.

- 薛盛瓚；“民譚과 濟州巫歌의 共時的 研究”，「韓國民俗學」8，民俗學會，1975.12.
- 宋正彥；“濟州島民謠의 가락에 대한 考察”，「교육제주」25，제주도교육위원회，1973.12.10.
- 申斗憲；“濟州島民謠의 研究”，碩士學位論文，檀國大學校大學院，1962.12.
- ；“濟州島民謠의 特質研究”，「文學春秋」3，文學春秋社，1966.4.
- 梁重海；“三姓神話와 婚姻址”，「國文學報」3，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70.7.30.
- 吳益三；“濟州島民謠 맺들·방아노래에 드러난 妻妾關係”，「學術調查報告書」6，濟州大學 國語教育科，1978.2.23.
- 李琪亨；“濟州島傳說에 나타난 死生觀”，「제주도」14，제주도，1964.5.6.
- ；“濟州島傳說의 諧謔性”，「제주도」32，제주도，1967.12.30.
- ；“濟州島傳說 속의 反抗精神”，「제주도」36，제주도，1969.11.25.
- 李東林；“濟州島神話에 대한 管見：良·高·夫乙那稱號를 中心으로”，「國語國文學報」1，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1958.12.
- 李杜鉉；“善妙와 광청아기說話”，「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1980.9.24.
- 李三悅；“傳說과 民俗信仰：濟州道の 경우를 中心으로”，「基督教思想」12 - 9，1968.7.
- 任東權；“실문대 할망 說話考”，「제주도」17，제주도，1964.10.
- 林憲道；“民謠에 나타난 濟州島民의 生態”，「國文學」1，公州師範大學，1959.
- ；“韓國民謠의 分析的 考察：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公州師大論文集」2，公州師範大學，1964.11.20.
- ；“濟州島女性의 嘆息謠考察（I·II·III）”，「제주도」22~24，제주도，1965.
- ；“濟州島民謠研究：嘆息歌를 中心으로”，「제주도」74，제주도，1978.12.30.
- ；“韓國民謠研究”，博士學位論文，檀國大學校大學院，1974.11.1.
- ；“耽羅民謠小考”，「一石李熙昇博士頌壽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

- 1957.4.25.
- ；“濟州島民謠의 類別의 考察”，「제주도」 31·33·34, 제주도, 1967.11 ~ 1968.7.1.
- ；“嘆息謠에 관한 研究：濟州島 民謠를 中心으로，” 「藏菴池憲英先生回甲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1971.
- 張壽根；“三姓神話 解釋의 한 試圖”，「국어국문학」 22，국어국문학회，1960.8.
- ；“濟州島巫歌”，「국어국문학」 21 ~ 22，국어국문학회，1960.
- ；“濟州天地創造說話의 文化領域性”，「제주도」 38, 제주도, 1964.3.31
- 鄭漢淑；“濟州島의 民俗과 文學：神話·傳說·說話를 中心으로”，「濟州島民俗」 2，濟州島民俗學會，1964.8.22.
- 左永助；“韓國民謠研究：濟州島民謠를 中心으로”，碩士學位論文，高麗大學校大學院，1965.6.30.
- 崔鶴巖；“濟州島民謠에 나타난 海女の 生態”，「現代文學」 4 - 12，現代文學社，1958.12.
- 玄吉彥；“濟州島 어린이 遊戲謠考：오늘날의 遊戲要素에 나타난 社會參與問題，” 「濟州島民俗」 2，濟州島民俗學會，1964.8.22.
- ；“고종달型說話에 나타난 民衆意識”，「제주도」 70, 제주도, 1976.12.31.
- ；“壯士傳說考”，「제주도」 71, 제주도, 1977.10.30.
- ；“고종달(胡宗旦)型說話에 나타난 濟州民의 意識構造”，「韓國文化人類學」 9，韓國文化人類學會，1977.12.31.
- ；“風水(斷脈)說話에 대한 一考察”，「韓國文化人類學」 10，韓國文化人類學會，1978.12.31.
- ；“힘내기型傳說의 構造와 그 意味：神話와 敍事巫歌와의 對比를 통하여，”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1980.9.24.
- 玄吉彥·金永和；“濟州說話를 통한 濟州島精神考究：堂神본풀이와 人物(壯士) 傳說을 中心으로”，「제주대학논문집」 12，인문과학편，1981.2.28.
- 玄容駿；“濟州島俗談의 特性”，「鄉林」 창간호，濟州商業高等學校，1959.
- ；“濟州民謠에서 본 島民의 生活相”，「鄉林」 2號，濟州商業高等學校.

1960.

- ；“濟州民謠의 俗談의 表現”，「詩作業」2집, 友生出版社, 1960.
- ；“濟州島 堂神話考”，「제주도」3, 제주도, 1962.6.20.
- ；“본풀이와 敍事詩”，「濟大學報」4, 濟州大學再建學生會, 1962.7.1
- ；“巫俗神話 본풀이의 形成”，「국어국문학」26, 국어국문학회, 1963.6.20.
- ；“본풀이의 形式과 內容”，「韓國言語文學」창간호, 1963.12.30.
- ；“堂神話의 motif 와 基本形式”，「國文學報」2,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64.1.25.
- ；“堂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民俗信仰”，「濟大學報」6, 濟州大學 總學生會, 1964.7.1.
- ；“堂의 儒式化와 三姓神話”，「제주도」14, 제주도, 1964.6.
- ；“濟州島神話에서 본 婚姻”，「濟大學報」9, 濟州大學總學生會, 1967.12.15.
- ；“濟州島神話와 開闢神話”，「제주도」52, 제주도, 1971.12.30.
- 櫻井哲男；“韓國의 民俗音樂調査から”，「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1-3, 日本國立民族學博物館, 1976.9.
- ；“韓國濟州島に現存する作業唄について”，東洋音樂學會 第27回大會研究發表, 1976.10.24.

## 〈民俗研究論著〉

## 著書

- 康大元；「海女研究」, 韓進文化社, 1970.3.10. 初版, 1973.4.20. 改正版.
- 金榮教；「濟州島民의 通過儀禮」, 文化財管理局, 1966.10.1.
- ；「濟州島民의 民間工藝」, 文化財管理局, 1967.11.1.
- ；「濟州島의 石像·石具」, 文化財管理局, 1968.12.1.
- ；「濟州島民家四棟」, 文化財管理局, 1970.4.1.
- ；「旌義고을」, 文化財管理局, 1973.12.1.
- ；「碾子磨」, 文化財管理局, 1975.3.1.

- ；「民俗村指定保存에 따른 指定對象村落概要 및 그 保存方向」, 제주도, 1976.12.1.
- 金鴻植；「民俗村指定保存對象地域調查報告書：城邑一里·東明里 南門洞 및 明月里 下洞」, 제주도, 1978.11.
- 文總濟州道支部；「濟州文化」1, 友生出版社, 1957.6.15.
- 石宙明；「濟州島의 生命調查書：濟州島人口論」, 서울신문사출판부, 1949.
-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11.10.
- ；「濟州島資料集」, 寶晉齋, 1971.9.30.
- 宋錫範；「濟州島風物」1, 進修堂, 1966.12.15.
- 梁相翹；「Echoes of Mt. Halla」, 勝文社, 1977.3.1.
- 梁宇鎮·Frederic H. Dustin·康壽彥；「Korea's Island Province : An Introduction to Cheju-do」, 濟州大學 觀光開發研究所, 1975.7.10.
- 梁弘植·吳太用；「濟州鄉土記」, 1958.
- 吳成贊；「濟州民의 일」( 紋事的 濟州案内書 ), 創元社, 1977.8.25.
- 李衡祥；「耽羅巡歷圖·南宦博物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3.25.
- 張壽根；「韓國의 民間信仰」, 東京 金花舍, 1973.
- 濟州道教育研究院；「향토지」, 濟州道教育委員會, 1972.10.31.
- ；「耽羅風物」, 濟州道教育委員會, 1975.11.15.
- 濟州道；「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12.
- 濟州大學 民俗博物館；「海村生活調查報告書：龍水里 및 吾照里」(「濟大學報」19輯 別冊), 濟州大學 學徒護國團, 1978.10.25.
- 濟州大學 耽羅研究所；「耽羅精神探究세미나 發表要旨」, 濟州道, 1979.10.9.
- 濟州大學 統一安保研究所；「濟州島民의 意識構造研究」, 濟州道, 1979.12.8.
- 濟州民俗文化研究會；「濟州民俗文化」, 1980.12.23.
- 서울大 濟州道學友會；「濟州神堂의 內容 및 現況調查報告書」, 서울大學校 濟州道學友會, 1973.
- Cho, Haejoang ; 「An Ethnographic Study of a Female Diver's Village in Korea : Focused on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by Ann Arbor, Michigan, U. S. A, London, England, 1979.

- 秦聖麒；「濟州島學」(第1輯 概觀篇)，人間社，1962.10.1。  
 ——；「濟州島民俗遺物」(第1輯)，제주민속문화연구소，1965.4.20。  
 ——；「南國의 巫俗」(濟州島巫俗考)，제주민속문화연구소，1966.6.15。  
 ——；「橋林의 香氣」，제주민속문화연구소，1966.6.15。  
 ——；「南國의 歲時風俗」，제주민속문화연구소，1969.12.31。  
 ——；「南國의 民俗」(上·下)，教學社，1975.7。  
 ——；「남국의 민속놀이」，흥인문화사，1975.9。  
 ——；「濟州民俗의 멋」，悅話堂，1979.12.30。  
 秦泰俊；「濟州道民間療法」，醫苑社，1977。  
 ——；「健康과 民間療法」，韓國考試研究院，1980。  
 崔在錫；「濟州島의 親族組織」，一志社，1979.9。  
 韓國文化人類學會；「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篇」，文化公報部 文化財  
 管理局，1974.12.30。  
 韓昌榮；「濟州道老人論攷」，韓一文化社，1978.5.5。  
 玄容駿(共著)；「靈을 招く：韓國의 샤ーマン」，日本 國書刊行會，1977.10.  
 25。  
 泉精一；「濟州島」，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1966。

### 論文

- 姜柄燦；“女性活動에 關한 研究：濟州道를 中心으로”，東國大行政大學院 碩士  
 學位論文，1977。  
 姜榮鍾；“濟州島의 婚俗”；「國文學報」6，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74.12.30。  
 ——；“楸子島의 婚俗”；「제주도」70，제주도，1976.12.31。  
 姜元植；“漁村住民의 鄉土意識에 關한 研究” 東國大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7。  
 姜恩淑；“서울市와 濟州市의 未婚男女의 結婚觀에 關한 研究”，高大大學院 碩  
 士學位論文，1981.12。  
 高南旭；“住民意識構造面에서 본 地域開發行態에 關한 調查研究”，「제주대학  
 논문집」11，제주대학，1980.2.28。

- 高富子；“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研究”，碩士學位論文，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1971.11.
- ；“濟州島民의 服飾”，「교육제주」30，제주도교육위원회，1975.12.10.
- ；“濟州島의 産前俗”，「國際大學論誌」14，國際大學，1976.
- ；“濟州島의 産後俗：濟州島産俗（Ⅱ）”，「韓國民俗學」9，民俗學會，1976.12.
- ；“濟州島의 育兒俗：濟州島産俗（Ⅲ）”，「國際大學論文集」4·5，國際大學，1977.
- ；“濟州島의 婚俗”，「國際大學論文集」6，國際大學，1978.
- ；「通過儀禮服의 研究」，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1980.
- 高翔龍；「韓國의 入漁慣行權에 관한 研究」，成均館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1967.
- 金基男·모수미；“濟州地域의 食品禁忌에 관한 調査研究：分娩期를 中心으로”，「대한가정학회지」15-1，대한가정학회，1977.
- 金基男；“濟州地域의 食品禁忌에 관한 調査研究”，「忠北大論文集」17，忠北大學校，1979.4.
- ；“濟州地域의 離乳實態 및 食品禁忌에 관한 調査研究”，「忠北大論文集」18，忠北大學校，1979.12.
- 金己太；“濟州島喪禮의 實態와 그 特色”，「學術調査報告書」5，濟州大學 國語教育科，1977.6.30.
- 金東旭·高富子；“濟州島의 衣生活：固有·京樣의 特有服飾”，「제주도」66，제주도，1975.8.4.
- 金良順；“濟州道の 家族生活實態一部에 관한 研究”，「대한가정학회지」15-1，대한가정학회，1977.3.
- 金正基·金鴻植；“濟州島의 住生活：南國의 特性 갖춘 생활요람”，「제주도」66，제주도，1975.8.4.
- 金榮敦；“海女の 漁撈方法”，「國文學報」3，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1970.7.30.
- ；“海女の 收益侵害”，「제주대학논문집」2，제주대학，1970.10.30.

- ；“濟州島海女研究序說”，「省谷論叢」1，省谷學術文化財團，1970.12.20。
- ；“資福彌勒”，「제주도」48，제주도，1971.3.15。
- ；“馬羅島의 意志”，「남제주」15，남제주군，1971.3.30。
- ；“濟州島海女の 出稼”，「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同刊行委員會，1971.12.25。
-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韓國文化人類學」5，韓國文化人類學會，1972.12.31。
- ；“城邑里民의 住民意識”，「濟研」1，濟州大學 濟州道問題研究會，1974.2.28。
- ；“濟州의 民間工藝”，「제주교육」26，제주도교육위원회，1974.4.20。
- ；“濟州의 碾子磨”，「文化財」8，文化財管理局，1974.12.10。
- ；“海女놀이”，「제주도」65，제주도，1975.4.15。
- ；“濟州의 碾子磨”，「濟研」2，濟州大學 濟州道問題研究會，1975.6.15。
- ；“民具學의 提唱”，「교육제주」31，제주도교육위원회，1976.6.30。
- ；“韓國人의 通過儀禮”，「姜馥樹博士回甲紀念 韓國語文論叢」，螢雪出版社，1976.6.15。
- ；“海女 노래와 海女”，「李崇寧先生古稀紀念論叢」，탑출판사，1977.7.22。
- 金仁濟；“濟州島의 墳墓制와 그 改善方案”，「제주도」31，제주도，1967.7.22。
- 金泰坤；“濟州島神堂의 懸納俗考”，「제주도」26，제주도，1966.8.18。
- 金泰能；“傳說의 섬 파랑島에 대한 異見”，濟州新聞，1959.10.20～10.22。
- ；“李健著 濟州風土記”，濟州新聞，1964.12.13～12.23。
- ；“濟州土俗과 永川李牧使의 治績”，「제주도」30，제주도，1967.9.5。
- ；“加波島와 馬羅島의 由來와 傳說”，濟南新聞，1971.8.12。
- 金漢九；〈書評〉：“濟州島의 親族組織”（崔在錫著），「韓國學報」19（1980 여름），一志社，1980.6.15。
- ；“傳統文化에 관한 社會認識學의 考察：三達里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현상과 인식」1981年 여름호，韓國人文社會科學院，1981.6.30。

- 金惠淑；“濟州道 家庭에서의 夫婦關係”，碩士學位論文，誠信女子大學大學院，1977。
- 文基善·梁昌普；“濟州道木物調查研究”，「제주대학논문집」8，제주대학，1977.2.28。
- 閔京姬；“韓國海女の 歷史 및 生活實態”，「梨大史苑」5，1964。
- 申幸澈；“濟州道民의 社會文化意識上的 傳統性：社會調查資料의 分布을 中心으로”，「제주대학논문집」11，제주대학，1980.2.28。
- 梁南順；“濟州道 農村勞動服의 物性에 관한 實驗的 研究”，碩士學位論文，高麗大學校大學院，1975。
- ；“濟州道 女性의 衣生活意識에 관한 研究：主婦와 女教師를 中心으로”，「대한가정학회지」14-4，대한가정학회，1976.12。
- 梁義淑；“제주도櫃에 대한 研究：裝飾文樣을 中心으로”，碩士學位論文，弘益大學校大學院，1971.12。
- Yoon Soon Young, Occupation: Male Housekeeper: Male Female Roles on Cheju island, Sandra Mattiell(ed), Virtues in Conflict, 1977.
- 李杜鉉；“濟州島民俗調查：古城里와 水山里的 歲時風俗과 部落祭를 中心으로”，「韓國文化」，1980.12。
- 李鳳俊；“濟州島民俗遊戲考”，「濟州島民俗」1，濟州島民俗學會，1964.6.7。
- ；“濟州島始祖神에 대한 一考：三姓穴 유래를 中心으로”，「濟州島民俗」3，濟州島民俗學會，1965.3.22。
- 李且淑；“우리나라 女性의 法的地位와 제주도의 蓄妾의 慣行”，「제주도」33，제주도，1968.4.30。
- 任東權；“民俗學에서 본 濟州島”，「제주도」8，제주도，1963.5.9。
- 張愛深；“濟州道 巫俗祭 祭物의 民俗學的 研究”，梨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1976。
- 張壽根；“濟州島女神考”，「濟州文化」창간호，文總濟州道支部，1957.6.15。
- ；“濟州島巫俗의 地域性에 대하여”，「제주도」15，제주도，1964.7.25。
- ；“濟州島巫俗의 도깨비信仰에 대하여”，「국어교육」18·19, 1972.12.25。

- 鄭三好；“濟州道 女大生の 衣服行動과 價値觀과의 相關研究”，「韓國衣類學會誌」 2-2, 韓國衣類學會, 1978.11.
- 趙惠貞；“濟州海女들의 性別分業에 대한 人類學的 研究”，韓國文化人類學會 月例發表會, 1979.3.31.
- 秦聖麒；“三다가 빛어낸 島民의 生態”，「제주도」 4, 제주도, 1962.
- ；“濟州島巫俗考：심방편”，「제주도」 10, 제주도, 1963.9.5.
- ；“濟州島巫俗考：본풀이를 중심으로”，「제주도」 13, 제주도, 1964.4.6.
- ；“濟州島民과 巫俗信仰”，「제주도」 16, 제주도, 1964.
- ；“堂神의 思想的 背景”，「제주도」 18, 제주도, 1964.12.
- ；“濟州島와 新興宗教”，「제주도」 20, 제주도, 1965.
- ；“本島巫俗神話와 祭次의 實態”，「제주도」 21, 제주도, 1965.9.
- ；“新舊間과 民俗信仰”，「국어국문학」 34·35, 국어국문학회, 1967.1.
- ；“耽羅先住民의 文化的內面：特に民俗信仰面を中心として”，「親和」 177, 日韓親和會, 1968.8.15.
- ；“濟州島民의 生活과 巫俗”，「제주도」 37, 제주도, 1968.12.30.
- ；“제주의 포제당과 부락제”，「제주도」 39, 제주도, 1969.7.31.
- ；“濟州島高山里民俗信仰”，「文化人類學」 4, 韓國文化人類學會, 1971.2.
- ；“濟州島 巫俗信仰의 意義”，「石宙善先生回甲紀念民俗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1.12.25.
- ；“濟州島 立春굿놀이”，「서낭당」 2, 1972.3.
- ；“濟州島의 生活과 契”，「文化人類學」 7, 韓國文化人類學會, 1975.12.31.
- ；“父子兩家의 生活流通：濟州島 歲時風俗을 중심으로”，「文化人類學」 9, 韓國文化人類學會, 1977.12.
- 秦元日；“무덤과 風水地理說”，「제주도」 27, 제주도, 1965.12.4.
- 崔在錫；“濟州島 潛嫂家族의 權力構造”，「東洋學」 5,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1975.
- ；“濟州島의 長男家族”，「亞細亞研究」 9-2,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6.

- ；“濟州島의 離·再婚制度와 非儒敎의 傳統”，「震檀學報」43，震檀學會，1977.5。
- ；“濟州島의 部落內婚과 親族組織”，「人文論集」23，高麗大學校 文科大學，1977.6。
- ；“濟州島 農村家族의 現實의 類型”，「農村問題」3，梨花女子大學校，1977。
- ；“濟州島의 婚姻儀禮와 그 社會的 意義”，「亞細亞女性研究」16，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1977。
- ；“濟州島의 死後婚”，「韓國學報」13，一志社，1978。
- ；“濟州島의 養子制度”，「人文論集」23，高麗大學校 文科大學，1978。
- ；“濟州島의 祖上祭祀와 親族構造”，「行動科學研究」5，高麗大學校 行動科學研究所，1978。
- ；“濟州島의 妾制度”，「亞細亞女性研究」17，淑明女子大學校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1978。
- ；“親族生活”，「韓國民俗大觀」1，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1980.10.15。
- ；“社會科學의 基礎素養：濟州島의 親族組織에 대한 김한구氏의 書評의 경우”，「韓國學報」20（1980 가을），一志社，1980.9.10。
- 玄容駿；“濟州石像 「우석목」考”，「제주도」8，제주도，1963。
- ；“濟州의 巫占法”，「제주도」12，제주도 1963。
- ；“濟州島 巫神의 性格과 神統”，「제주도」17，1964。
- ；“濟州島 巫神의 住處”，「濟州島民俗」3，濟州島民俗學會，1965.3。
- ；“濟州島의 巫覡”，「濟大學報」7，濟州大學總學生會，1965.8.30。
- ；“濟州島의 巫俗儀禮”，「韓國言語文學」3，韓國言語文學會，1965.12.30。
- ；“濟州島 巫俗의 疾病觀”，「제주도」21，제주도，1966.9.18。
- ；“濟州島 무당굿놀이概觀”，「文化財」2，文化財管理局，1966.11.1。
- ；“濟州島海村의 巫俗信仰實態”，「제주도」35，제주도，1968.7.1。
- ；“濟州島巫覡의 職能者로서의 性格”，「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1969.3.13。

- ; “濟州島巫儀의 ‘기메’考”, 「文化人類學」2, 韓國文化人類學會 69.11.30.
- ; “濟州島部落祭堂”, 「部落祭堂」, 文化財管理局, 1969.
- ; “濟州島の 영등굿”, 「韓國民俗學」1, 韓國民俗學會, 1969.12.30.
- ; “濟州島 海村生活의 調查研究(1)”, 「제주대학논문집」2, 제주대학, 1970.10.30.
- ; “濟州島 海村生活의 調查研究(II)”, 「國文學報」3,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0.7.30.
- ; “濟州島の 儒式部落祭”, 「石宙善教授回甲紀念民俗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71.12.30.
- ; “濟州島の巫俗: その儀禮形式に見える信仰複合”, 「民族學研究」30-4, 日本民族學會, 1972.3.
- ; “濟州島 샤마니즘의 部落守護神 形成”, 「샤마니즘의 現代的 意味」, 1973.3.10.
- ; “濟州島巫俗の神々”, 「東洋文化」53, 東京大學, 1973.3.
- ; “神房과 샤만”, 「韓國民俗學」6, 民俗學會, 1973.10.5.
- ; “濟州島巫俗의 比較研究(I)”, 「제주대학논문집」5, 제주대학, 1973.12.25.
- ; “濟州島巫俗의 比較研究(II)”, 「國文學報」5, 濟州大學 國語國文學會, 1973.12.30.
- ; “濟州島巫俗의 比較研究(III)”, 「제주대학논문집」6, 제주대학, 1974.12.30.
- ; “濟州島のシンバン”, 「えとのす」3, 日本新教育圖書, 1975.7.10.
- ; “濟州島の 基層文化”, 「文化人類學」7, 韓國文化人類學會, 1975.12.31.
- ; “濟州島巫俗儀禮研究”, 「제주대학논문집」7, 제주대학, 1976.5.10
- ; “花盤考”, 「韓國民俗學」9, 民俗學會, 1976.
- ; “濟州島の喪祭: K村の事例を中心として”, 「民族學研究」42-3, 日本民族學會, 1978.12.10.
- ; “民俗을 통해서 본 耽羅精神”, 「耽羅精神探究」, 濟州大學 耽羅文化研究所, 1979.

- ；“羅馬戲考：영등굿에서의 競漕民俗”，「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同刊行委員會，1980.9.24.
- Yong-joon Hyun : Family and Religion in South Korea, Chiefly based on Cheju Island, The Symposium on Family and Religion in East Asia Countries, Vol XI, Nos 1-4, 1972.
- ；“濟州島の基層文化に關する一考察”，「國分直一博士古稀紀念論集」歷史民族篇，日本新教育圖書，1980.
- 玄春植；“제주도의 민속예술”，「제주도」76～77, 제주도, 1979.12.30～1980.6.30.
- 洪明杓；“濟州道 海女の 權益被奪에 關한 研究”，東國大 行政大學院，1977.
- 洪性穆；“海女와 漁場”，「제주도」3, 제주도, 1962.8.1.
- 洪喜久；“本道 出嫁海女の 權益問題”，「제주도」37, 제주도, 1968.12.30.
- 洪貞杓；“耽羅歲時”，「濟州年鑑」(1970), 濟州年鑑社, 1976.7.31.
- 黃德旬；“濟州道の 家計管理實態에 關한 研究”，「대한가정학회지」19-2, 대한가정학회, 1981.6.
- 黃慧性；“郷土飲食”，「韓國民俗大觀」2,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0.10.15.
- 田邊悟；“濟州島の海女にみられる民俗の類似性”，「日本民俗學」91, 日本民俗學會, 1974.1.
- 佐藤信行；“濟州島の家族と親族：0村の事例”，「國際基督教大學學報」III-A, <アジア文化研究> 7, 日本 國際基督教大學, 1973.
- ；“濟州島の家族：0村の事例から”，「東洋文化」53, 日本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73.
- ；“濟州島の家族”，「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中根千枝編), 東京大學出版會, 1973.
- 稻田菊太郎；“濟州島潛女集落(一)(二)”，「阪南論集」9-3・11-3, 日本 阪南大學, 1973.12.5～1976.

## 〈Summary〉

**A Survey of the Researches on Jeju Do's Language,  
Literature and Folk-coustom after the Korean Liberation**

*Kim Young-don, Synn Haeng-chull and Kang Young-bong*

1. In this survey, we summarized the general tendency of the researches on Jeju Do's dialect, oral traditional literature and folk-coustom from the Liberation to the late 1970s, as a part of basic preparation for publishing the academic history of Jeju Do.

2. We can look upon the Korean Civil War as the same time like "Renaissance" in Jeju Do and the academic world in Jeju Do had begun as Jeju college was opened and had developed according to the growth of it. It is not until the 1960s that books on the dialect and oral traditional literature were published. So the study of those began to be conducted and gradually expanded into even folk-coustom. And around the 1970s, the fields of the investigation and study were expanding and subdivided and also the close investigation were made. The joint investigation and study activities were activated and foreign scholars' visits to Jeju Do increased gradually.

3. The researches on Jeju Do's dialects were made with putting special stress on collection of its vocabularies, morphology and phonology. Their basis had already been implanted in the early 1960s. The researches on its syntax and semantics have still been waste and there are many unsolved problems, such as establishment of study of its part of speech and the system of consonant, systematic researchs on all kinds of suffix, etc. Many Korean and foreign scholars pay consistent attention to such subjects. Nowadays, it seems to be time to refocus on the dialects of Jeju Do from the viewpoint of new accidence which is currently examined by the Korean language circle. Of all these tasks, the collection of the vocabulary of the dialects must be formed on a large scale.

4. The collection and the study of folksongs among the genres of oral traditional literature had been carried out relatively earlier and the results were outstanding. The analyses of the folksongs, however, have been made with putting special stress on only people's consciousness viewpoint in the folksongs rather than on the other many sided points of view. And compared with the development of analysis of their stories, the study of their musical value does not seem to be sufficient and the collection and the study of children's songs do not make special progress any more. Contrary to folktales, the collection and the study of folk religious songs are very active but those of proverbs, riddles, the tales of taboo and so on make slow progress. It is since 1979 that the researches on oral traditional literature had been conducted by the method of investigation through field works.

5. When we classify the field of folk-coustum into that of society, folk religion, folk art, season coustoms and the like, the studies of kinsfolk, family and rites for passage, that is, birth, marriage and death, are relatively active and those of folk religion made considerable progresses. The studies of manufacturing techniques except women divers still stays behind. And among the studies of food, clothing and housing, that of housing life makes a progress considerably, too. The investigation on folk art and season coustoms makes poor one. It is not until the 1970s that the study of folk-coustum, which have attracted attention from the early 1960s, have become very active and the investigation have done so.

6. There are a lot of tasks worth investigating and researching from the various point of view, such as dialects, oral traditional literature and folk-coustum of Jeju Do. The careful analysis and researches are urgent, but above all, the collection of study materials must be promoted systematically. In addition, we must keep it in mind that we might lose several precious study materials by a rapid change of society.